

미리 크리스마스, 즐겨볼까

metro®

메트로 2015년 11월 3일 화요일 제3333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2일>

코스피	2035.24	(+5.77)
코스닥	680.01	(-3.62)
금리(국고채 3년)	1.66	(+0.02)
환율(원·달러)	1137.50	(-1.00)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얼굴 맞댄 朴 대통령·아베 총리 위안부문제 조기 타결 속도낸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첫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함께 했다고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연미란 기자 actor@

새벽을 여는 사람들

③ 서울메트로 신림역 남기관 부역장

"첫 차 기다리는 시민 보면 뭉클"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만난 남기관 부역장이 CCTV 화면을 가리키며 역무원의 업무를 설명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새벽 5시, 동이 채 트기도 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는 첫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여 들었다. 친구들과 함께 밤을 지새운 청춘들, 이른 아침부터 생활 터전으로 향하는 이들이 플랫폼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온기는 새벽의 추운 공기를 한결 따뜻하게 데운다. 이들보다 먼저 일어나 새벽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지하철 역무원이다.

지하철 역무원의 일과는 새벽 4시 30분부터 시작된다. 전날 오후 6시부터 근무를 시작한 야간조가 당직실에서 일어나는 시간이다.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복장을 갖추는 것이다. 늘 시민을 대해야 하는 만큼 단정한 복장은 역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다.

신림역의 첫차는 평일 기준으로 내선순환이 새벽 5시33분에, 외선순환이 새벽 5시39분에 출발한다. 그전까지 역무원은 역의 시설물을 점검하기 위해 바삐 움직인다. 조명을 켜고 스크린도어를 확인하고 각종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파악한다.

역무원의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출근시간이 돼 인파가 몰리면 역장과 당직 책임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함께 플랫폼에 내려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오전 9시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주간조는 시민 민원 응대부터 수익금 관리까지 역 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고객 접대·열차운행 관리·민원 처리·시설물 관리 등 그야말로 지하철 업무의 '종합선물세트'다.

신림역은 서울메트로가 관리하는 지하철 1~4호선 중에서 강남역·잠실역·홍대입구역에 이어 4번째로 승하차 인원이 많은 역이다. 하루에만 14만 명이 넘는 시민이 이곳에서 지하철을 이용한다. 새벽부터 많은 사람이 몰리는 만큼 역무원의 역할도 클 수밖에 없다.

>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지킴이' 사명
> 조명·스크린도어 등 시설물 점검
>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할 수 없어
> 안전 없는 고객서비스는 무의미
> "

신림역의 남기관 부역장(55)은 "역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관리, 그리고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안전 없는 고객 서비스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인 만큼 역무원은 새벽부터 늘 긴장해야 한다.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만큼 고된 일이지만 남 부역장은 "잠 못 자는 게 힘들어도 일은 즐겁다"고 말했다.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사명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첫차를 타기 위해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면 뭉클합니다.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우리가 더 잘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요."

힘든 순간마다 그에게는 긍정의 힘이 버팀목이 된다.

남 부역장은 "유실물을 찾아줬을 때, 혹은 계단을 올라가는 어르신을 도와드렸을 때 듣는 격려나 칭찬에서 힘을 얻는다"며 웃는다.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작은 것에서 보람을 찾으려 한다.

"직원끼리 같이 아침을 먹으러 가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편하게 이용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야간근무를 마치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퇴근을 하죠. 눈에 띄지는 않아도 전직원이 근무를 하기에 시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요. 사람들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금방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사에 긍정적이 돼 얻은 것도 많아요."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Big sales of M&A, changing the financial world too.

M&A 큰 장, 재계판도 바꾼다

Samsung is closing all the chemical-related-businesses. According to the financial market, Samsung has decided to sell the remained chemical-related-businesses to Lotte. The price is about 3trillion won, which is the biggest deal in Korea.

Samsung SDI held a board meeting on the 30th of October and decided to separate the chemical-related-businesses out and also make a separate corporate body for it, and then sell all the shares to Lotte Chemistry. The price is 2.58 trillion won. And Samsung SDI will sell the 14.65% share of Synthetic chemistry, which is the whole share of the chemistry sector from Samsung SDI, to Lotte Chemical.

Besides Samsung SDI, the subsidiaries of Samsung will hand over the whole share to Lotte; Samsung electronics(8.39%), Samsung Produce(5.59%), Sinra Hotel (2.24%), Samsung electricity (0.26%), which is 31.23% in total. The price is about 465 billion won which is 80,311,190 shares.

With the disposal of Samsung synthetic chemistry, the management and the share of Samsung BP will be handed over to Lotte as well. BP chemical now has 51% and Synthetic chemistry has 49% of the whole share of Samsung BP chemic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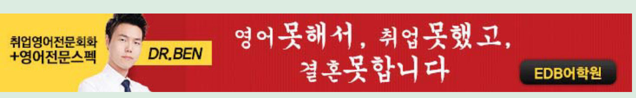
Lotte will become the 'Big 3' in chemical business after this big deal, and Hanhwa, which took over LG chemistry and the subsidiaries of petro-chemistry of Samsung are going to compete in the market. LG chemistry, Hanhwa petro-chemistry, and Lotte petro-chemistry are recording the sales of 22.5 trillion, 19.3trillion and 19.2trillion won each.

삼성그룹이 화학 관련 사업을 모두 정리한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남아있던 화학계열사를 모두 롯데그룹에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 금액은 3조원 안팎으로 국내 화학업계 최대 빅딜이다.

삼성SDI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케미칼 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지분 전량을 롯데케미칼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금액은 2조5850억원이다. 이와 함께 자사가 보유한 삼성정밀화학 지분 14.65% 전량을 2189억원에 롯데케미칼에 매각하기로 했다. 삼성SDI 외에 삼성전자(8.39%), 삼성물산(5.59%), 호텔신라(2.24%), 삼성전기(0.26%) 등 4개 계열사들도 보유한 지분 전량(31.23%)을 롯데케미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총 매각 지분은 803만11190주로 4650억원 상당이다. 삼성BP화학은 삼성정밀화학 매각에 따라 경영권과 지분이 롯데로 넘어간다. 삼성BP화학은 BP케미칼이 51%, 삼성정밀화학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번 빅딜로 롯데그룹은 LG화학과 삼성의 석유화학부문 계열사들을 인수한 한화그룹 등과 함께 화학분야 '빅3'로 떠오르며 치열한 시장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LG화학은 22조5800억원, 한화 석유화학 계열사들은 19조3091억원이며 이번 빅딜로 롯데 석유화학부문은 19조2083억원(지난해 기준)의 매출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국제

▲ 주요 직종에 종사하는 한국인 **여성 취업자**의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열린 데 대해 주요 외신들은 한일 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손상된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 '일본 여학생의 약 13%가 **원조교제**를 하고 있다'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발언이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사회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 방한 중인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2일 경기도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사물인터넷(IoT) 개발실, 3차원(3D) 프린터 등을 돌아보는 등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경험했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2일 회의를 열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의 예비비 편성 논란으로 공방을 거듭하다 경제분야 정책 질의는 운을 떼지 못했다.

▲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장남 회사 광고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정옥근**(62)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 **이승복** 교과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지난달 12일 국정화 계획을 행정예고하면서 밝혔던 대로 5일 확정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하루 이틀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 최초 밤하늘보호공원 경북 영양군 수비면 수하계곡 일대의 밤하늘이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지정됐다. 사진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에서 촬영한 영양의 밤하늘. /연합뉴스

산업·경제

▲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은 '국민은행 창립 14주년' 기념사를 통해 "체질을 바꾸고 몸을 가볍게 해야 경쟁은행과의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는 '스피드와 지구력'을 갖출 수 있다"며 "꾸준한 체질 개선을 통해 '넘버원 KB'를 향해가자"고 강조했다.

▲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영세·중소 가맹점은 0.7%포인트, 일반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낮아진다. 가맹사업자의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 카드사는 수익하락을 우려하며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국내 손해보험업계가 100세 시대에 맞춰 **헬스케어서비스**를 잇따라 마련하고 나섰다. 헬스케어서비스는 건강 유지와 증진, 질병의 사전예방 등을 목적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부가적 서비스 일체를 말한다.

▲ **KDB대우증권**이 매물로 나오면서 증권업계에 다시 인수합병(M&A) 바람이 불고 있다. KB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인수를 위한 예비입찰서를 제출, 자기자본 기준 업계 2위 대우증권을 품기 위한 3파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 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이 케이블TV 업계 1위인 CJ헬로비전을 전격 인수하면서 방송·통신 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수로 SK텔레콤은 통신 시장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방송 시장에서도 몸집을 키움으로써 방송·통신 업계 전반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 **T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K플래닛이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김기사'를 운영하는 록앤올이 상대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기사 측은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상용지도를 토대로 독자적으로 제작한 만큼 SK플래닛의 전자지도 DB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해양플랜트**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양플랜트 악재가 이어지면서 올해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사상 처음으로 모두 조 단위 적자가 유력하다. 업계에서는 실적 개선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전망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공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롯데그룹 계열사에 ㈜에스디제이가 포함됐다.㈜에스디제이는 SDJ코퍼레이션의 법인명이다. 롯데측은 기업집단 관리 기준상 계열사에 편입됐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 백화점이 때이른 **크리스마스** 단장을 시작했다. 롯데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은 미리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는 등 크리스마트 장식을 시작하고 크리스마스 특수 겨냥에 나섰다.

▲ 롯데그룹의 첫 스타트업 지원기업으로 **허니스푼**이 선정됐다. 허니스푼은 벌꿀 제조사로, 1~2인 가구를 겨냥한 소용량 제품으로 홈쇼핑과 편의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다.

'위안부 문제' 진일보… 경제협력은 이보 전진

한일 정상회담 주요 협의 내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

- 박근혜 대통령, 위안부 문제가 양국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점 강조
- 한일 정상,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되는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도록 지시

북한·북핵 문제

- 북핵 등 공동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및 한미일 3국 협력 평가
- 다자 차원에서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 지속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박 대통령, 추후 TPP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유지해온 양국 통상 협력 관계를 TPP에서도 이어가길 기대
- 아베 총리, 한국측의 TPP 참여검토를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관심 표명

경제협력

- 정부 차원서 지원해 양국기업간에 제3국 공동진출을 확대키로 합의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간 여러 경제협력 관련된 이슈에 대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후속 협의 위해 고위급 협의회 신설
- 세계 1·2위 수입국인 한일 양국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문제도 논의해 수급 문제 대응

인적 교류

- 인적 교류가 양국관계 발전의 근간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특히 미래 세대인 청소년간 보다 활발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 및 협력 증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연합뉴스

한일 정상회담

국교정상화 50주년 맞아 靑 "FTA·TPP 긴밀 협력" 日 "위안부 조기타결 목표"

북핵엔 양국 공조 강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기 타결을 위해 양국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이를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첫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수석은 "양 정상은 올해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날 회담은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간의 회담 이후 3년 5개월여 만이다. 2013년 2월 취임한 박 대통령과 2012년 12월 2번째로 총리직을 맡은 아베 총리는 그동안 다자회의 등에서 만나 환담한 적은 있으나 정식 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정상은 이 자리에서 한·일FTA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경제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방문 때 한국의 TPP 가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데 이어 이날 회담에서도 "한국이 TPP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한·중·일 FTA와 RCEP 협상에서의 협력관계를 TPP에서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의 TPP 참여 검토 동향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면서 협력의사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메가 FTA 협력'에 이르기까지 각종 경제현안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상회담의 이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 방침이다. 한일 기업이 협력해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양 정상은 이와 함께 다자 차원에서 북핵 문제 대응에 양국간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은 당초 군 위안부 문제를 주요 의제로 30분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오전 10시5분 시작된 대화는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을 합쳐 11시45분까지 100여분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단독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담이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진심어린 회담이 되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도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군 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을 목표로 협상 가속화에 일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미래지향의 일·한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면서 과거보다는 미래에 방점을 뒀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첫 걸음은 뗐지만… 아베는 사과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일 첫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딤에 따라 경색됐던 양국 관계의 향후 전개에 이목이 집중된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날 회담의 주요 의제는 예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가 핵심이었다. 이날 양 정상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에 중지를 모았지만 이 문제와 관련된 아베 총리의 사과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양 정상은 올해가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의 가속화에 동감했지만 밀도 있는 논의 끝에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담판을 짓지 못했다. 다만 과거사 문제를 놓고 그간 양국의 이견이 컸던 만큼 이날 '협의 가속화'는 눈에 띄는 성과는 아니지만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된다. 한일 정상회담 성사 자체가 앞으로 양국 관계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였던 '투트랙' 외교의 완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정부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과거사와 안보·경제 등 상호 호혜적 분야를 분리 접근하는 '투트랙' 기조를 취해 왔다. 하지만 한·일 관계에서는 이 투트랙 기조가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에 투트랙 기조를 적용한 첫걸음이 되는 셈이다. 한일 정상회담 성사 배경에는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기대감을 외면하기 어려운 외교적 입장이 작용했을 것란 분석이 나온다.

'가속화' 해석 온도차에 양국간 발목 잡을 수도

이날 한·일 회담이 성사됨에 따라 이 달 예정된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자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추가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회담이 성사된 만큼 향후 회담은 서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회담의 형식이 될 거란 기대감도 커졌다.

다만 한·일관계 정상화는 이날 양 정상이 합의한 '조속타결 협의 가속화'를 어떤 방식으로 푸느냐에 달려 있다. 한·일 양국이 가속화에 대한 의미를 달리 해석하거나 각자 방식을 고수하는 과정에서 발목 잡는 형국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사를 바라보는 양 정상의 인식차가 큰 것도 걸림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아픈 역사의 치유"라는 발언 속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함축적으로 담았다. 과거사의 치유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함께 출발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아베 총리는 "미래지향적 일·한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고만 언급했다.

과거사 해법 제시는 생략한 채 일단 미래로 향해 나가자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이어 회담종료후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미래지향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가는데 있어 미래세대에 장애를 남기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미래만을 강조한 아베 총리의 이같은 입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아베 총리의 '협의 가속화'가 일시적 면피를 위한 것인지, 진정성을 전제로 해결 의지를 둔 것인지는 조만간 이뤄질 후속협의에서 그 속내가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미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15년 대한민국 부동산 경매교육의 중심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11월 4일 ~ 11월 26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10시 / 총8강
- (주말반) 11월 7일 ~ 11월 2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5시 / 총8강

현장교육 (별도옵션) : ~~250,000~~ → 80,000원
11월8일(일), 11월15일(일), 11월25일(수)

※사전 수강 신청 필수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카드수수료 인하… 가맹점 6700억 덜 낸다

<연간 부담액>

영세·중소 0.7%p, 일반 0.3%p↓
금융당국, 내년 1월 말부터 적용

카드업계 "문 닫는 회사 나올 것"
VAN 수수료 '정률제' 변경 논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가 열린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훈 기획재정정조위원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김정훈 정책위의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용태 정무정조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큰 폭으로 내린다. 영세·중소 가맹점은 0.7%포인트, 일반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떨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가맹점 부담액이 6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세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원, 중소가맹점은 연간 최대 210만원의 카드수수료 납부 부담이 줄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음식점 등 가맹사업자의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 카드사는 수익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이대로라면 카드사 몇 군데는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며 울상이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대수수료율 1.5%를 적용받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로, 연매출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현재 2.0% 수수료율에서 1.3%로 각각 0.7%포인트 인하된다.

연매출 3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해 현재 평균 2.2% 수준의 수수료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카드사의 인하를 유도해 평균 1.9%로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또 현재 2.7% 수준인 수수료율 상한은 2.5%로 하향조정한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하는 국세납부 대행수수료율은 1.0%에서 0.8%로 인하된다.

다만 수수료율이 평균 1.96%인 대형 가맹점(연매출 10억원 초과)의 수수료율은 그대로 적용된다. 대형 가맹점은 그동안 카드사의 마케팅 지원을 거의 독차지하면서도 영세 가맹점을 제외한 대부분 가맹점보다 수수료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율이 낮은 구조인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내린다.

영세가맹점은 현 1.0%인 우대수수료율이 0.5%로 인하되고,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 낮아진다.

일반가맹점 체크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현재 1.7%인 비은행 전업카드사(1.7%)와 1.5%인 은행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1.5%로 통일하기로 했다.

일반가맹점에는 체크카드 수수료와 별도로 계좌이체 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내년 1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수수료율 인하 조치로 전체 카드 가맹점의 97%에 해당하는 238만개 가맹점이 0.3~0.7%포인트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영세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원 가량, 중소가맹점은 연간 최대 210만원의 카드수수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가맹점들의 전체 수수료 부담 감소액은 연간 약 670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카드업계는 이번 수수료 인하가 대형 가맹점까지 번질까 우려하는 한편 밴(VAN) 수수료 조정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카드사들은 카드 결제 건당 지급하는 밴 수수료를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카드결제 2012년 수수료 체제 개편 이후 3년간 카드사의 매출원가가 하락해 상당폭의 수수료 인하 여건이 조성된 만큼 이번 인하폭 산정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창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자금조달금리 하락 등으로 원가가 떨어졌고, 밴사 리베이트 금지 등 제도개선으로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며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 감소분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카드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의 활성화와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현행 5년에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원가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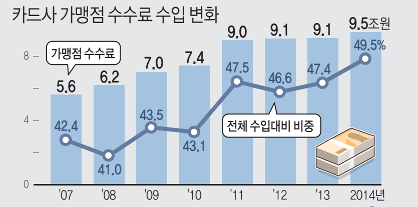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

연간 약 6,70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감소 전망

3억원 이하, 감독규정에서 단일률로 규정
3억원 이상, 수수료율 평균에 대한 추정치

가맹점 구분 (연 매출액 기준)			현행	→	개선안	인하폭
신용	영세·중소 가맹점	~2억원	1.5%	→	0.8%	0.7%p
		2~3억	2.0%	→	1.3%	0.7%p
	일반 가맹점	3~5억	약 2.15%	→	약 1.85%	0.3%p
		5~10억	약 2.22%	→	약 1.92%	0.3%p
		10억 초과	약 1.96%	→	약 1.96%	변동 없음
	수수료 상환		2.7%	→	2.5%	0.2%p
	국세납부대행수수료		1.0%	→	0.8%	0.2%p
체크	영세 가맹점	~2억원	1.0%	→	0.5%	0.5%p
	중소 가맹점	2~3억	1.5%	→	1.0%	0.5%p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수입 변화



자료/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롯데가 벌꿀회사에 투자한 사연은…

엑셀러레이터 1호 '허니스푼' 낙점
홈쇼핑·면세점 등 롯데 유통채널 입점
소규모 양봉농가 상품 징검다리 기대

'허니스푼'은 어떤 기업?
양봉가 아버지·디자이너 딸 합작
1·2인 가구 겨냥 소량 패키지 개발
벌꿀 이용 식품제조업체 성장 꿈꿔

롯데그룹이 롯데 엑셀러레이터 1호 기업을 선정했다. 롯데엑셀러레이터는 롯데가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초기자금과 인프라,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투자법인이다.

롯데는 첫 스타트업 투자기업으로 천연 벌꿀 생산·판매 스타트업인 '허니스푼'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허니스푼은 홈쇼핑, 면세점 등 롯데의 유통 채널에 입점해 판로를 개척하게 된다. 또 소규모 양봉 농가의 꿀을 구매해 상품화하는 등 사회적 기업으로써의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롯데 엑셀러레이터 1호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허니스푼은 어떤 회사일까.

허니스푼은 대표적인 가업승계 기업이다. 35년 이상 양봉업에 종사한 아버지와 디자이너 딸이 벌꿀을 편리하게 보관하고 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더해 만든 회사다. 소량 패키지화한 스틱허니, 튜브허니 등이 대표 상품이다.

현재 허니스푼은 디자이너인 이민진씨와 그의 남편인 천윤필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1982년생 동갑내기 부부인 이대표와 천대표는 부친의 양봉업을 현대화하면서 1·2인 가구의 성장을 주목했다. 한번 타먹을 용량을 담은 스틱허니 등이 대표적인 예다. 허니스푼은 부친뿐만 아니라 부친과 같이 양봉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농가들도 지원해왔다. 소규모 농가들과 MOU를 통해 벌꿀을 공급받으면서 올해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허니스푼의 홈쇼핑 방송 장면.

허니스푼과 롯데의 인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부산창조경제 혁신센터 내에서 열린 아웃소싱박람회에 참가해 롯데 계열사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에 추석선물세트 납품 결정이 롯데와의 첫 인연이다. 당시 허니스푼은 추석연휴 3주동안 13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달 초에는 롯데홈쇼핑이 창조경제 혁신센터 내 브랜드에 지원하는 사업에 허니스푼이 최종 업체로 선정돼 전문 촬영인력과 장비 그리고 쇼호스트를 지원받아 지난달 27일부터 홈쇼핑에서 판매도 하고 있다.

롯데 엑셀러레이터 1호기업에 선정되면서 이달 중에는 부산롯데면세점에 오프라인 매장도 오픈할 예정이다.

이·천 공동대표는 향후 허니스푼을 벌꿀을 이용한 식품 제조업체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나아가 벌꿀을 이용한 디자인 소품, 뷰티제품까지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

'통·방 공룡' 등장… 떨고 있는 KT·LG

<통신·방송>

통신·방송산업 지각변동 <上>

통신시장 지배력 강화 업계 전반 영향있을 듯

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이 2일 케이블TV 업계 1위인 CJ헬로비전을 전격 인수해 방송·통신 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수로 SK텔레콤은 통신시장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방송 시장에서도 몸집을 키움으로써 방송·통신 업계 전반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SKT, 유료방송시장에도 영향력 확대

2일 통신방송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이번 CJ헬로비전 인수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유료방송 산업이다. SK텔레콤은 가입자 335만명을 보유하며 인터넷TV(IPTV) 분야 시장점유율 2위를 달리고 있는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420만명의 가입자를 거느린 CJ헬로비전을 추후 합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유료 방송 가입자 수를 750만명으로 늘리며 업계 1위 KT를 바짝 뒤쫓는 동시에 업계 3위인 LG유플러스(가입자 220만명)를 멀찌감치 따돌리게 된다. KT의 경우 IPTV인 올레tv 가입자 615만명, 위성방송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200만명 등 약 815만명의 유료 방송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무선통신 분야에서도 알뜰폰 업계 1위인 CJ헬로비전의 가입자 87만명을 끌어들임으로써 점유율이 다시 50%를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SK텔레콤은 올 초 과반 점유율이 무너져 49%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기존 KT망으로 가입한 CJ헬로비전의 대다수 가입자가 SK텔레콤 망으로 넘어오면 점유율 50%대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도 CJ헬로비전이 88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어 SK브로드밴드 가입자 500만명과 더하면 총 가입자 수는 600만명을 육박한다. KT와 LG유플러스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각각 828만명, 344만명이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과 합병함으로써 단순히 외형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 IPTV, 초고속인터넷으로 운용하던 결합상품에 케이블TV까지 더해 상품 구성을 더욱 다양화함으로써 유무선 시장을 아우르는 시장 지배력을 더 키울 수 있게 됐다.

◆통신방송업계 지각변동 촉매될까

이번 합병으로 SK텔레콤이 통신과 방송을 아우르는 영향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자 경쟁사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다.

KT는 "SK텔레콤이 통신에 이어 방송까지 독점력을 확대해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시장을 황폐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경쟁 활성화 정책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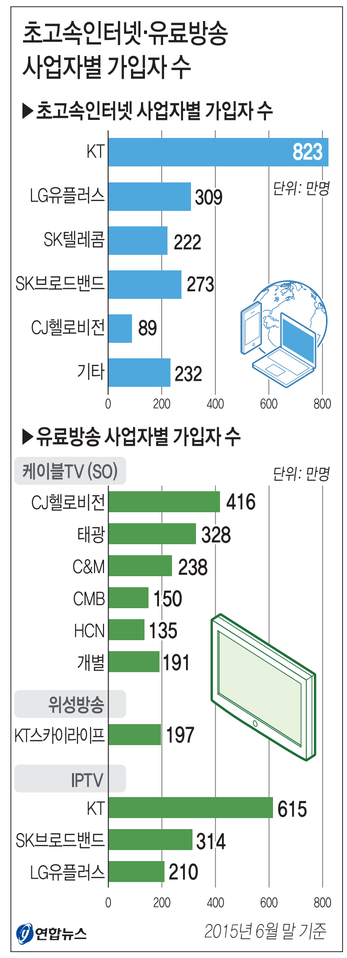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통신시장 지배력을 유료방송 시장까지 확대해 경쟁 사업자들이 고사 상태에 내몰릴 수 있다"며 "알뜰폰 시장의 독점구조도 더 공고히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시민단체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은 지금도 방송·통신시장에서 지배적인 영향력과 권한 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케이블TV 업계 1위이자 알뜰폰 업계 1위인 CJ헬로비전까지 인수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양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정 사업자가 특정 업종을 장악하면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케이블TV 업계 2위인 씨앤앰 매각, 내년에 한국 진출을 선언한 세계 최대 인터넷 기반 방송 서비스업체 넷플릭스의 협력사 선정 작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들어 신성장동력으로 미디어 사업을 부쩍 강화하고 있는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로 방송통신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손을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씨앤앰 인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둘 것으로 보인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한국 여성이 가장 혹사당하고 있다… 15년 간 주당 근로시간 1위

2014년 주당 41.5시간… 유럽 주요국 35시간 그쳐
韓남성들도 '1주당·연간 평균 근로시간' 세계 2위

한국인 여성 취업자의 1인당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2일 OECD의 '1인당 평균 근로시간' 통계에 따르면 주요 직종에 취업해 일하는 한국 여성들은 2014년 주당 평균 41.5시간을 일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 다음으로 긴 나라는 터키로 주당 평균 41.4시간이었다.

나머지 회원국들은 모두 40시간 이하였다.

특히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주당 평균 35시간 이하였다.

핀란드가 34.8시간, 스페인 34.6시간, 스웨덴 34.4시간, 프랑스 34.2시간, 룩셈부르크 33.8시간, 벨기에 33.2시간, 이탈리아 32.7시간, 오스트리아 31.9시간, 영국 31.7시간, 노르웨이 31.6시간, 아일랜드 31.5시간, 덴마크 31.1시간, 독일 30.5시간 등이었다. 비유럽국가인 뉴질랜드와 호주는 각각 32.8시간, 30.9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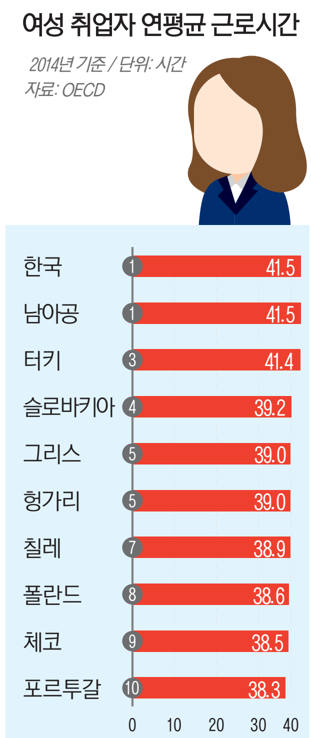
30시간 아래인 국가도 있었다. 스위스는 29.1시간, 네덜란드는 24.6시간이었다.

◆한국 여성 15년간 줄곧 최장 근로시간

한국은 조사가 시작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년 동안 줄곧 1위였다. 다만 빠른 속도로 여성의 근로시간이 줄면서 다른 회원국과의 격차가 줄고 있다. 한국은 2000년 48.8시간, 2001년 48.5시간, 2002년 47.9시간, 2003년 47.3시간, 2004년 46.9시간, 2005년 46.4시간, 2006년 46.2시간, 2007년 45.4시간, 2008년 44.3시간, 2009년 44시간, 2010년 42.9시간, 2011년 41.7시간, 2012년 42.4시간, 2013년 40.9시간, 2014년 41.5시간이었다.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주당 근로시간이 가장 길다는 오명을 터키에게 넘겨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남성은 2005년까지 1위 …2006년이후엔 터키가 1위



남성의 경우 한국은 이미 2006년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 1위 자리를 터키에게 넘겨줬다. 이전까지는 2000년부터 줄곧 1위 자리를 지켰다.

2014년은 46.7시간으로 2위였다. 다른 회원국들은 45시간 이하였고, 유럽 선진국들은 40시간 이하였다.

한국은 남성과 여성 취업자 모두 근로시간이 꾸준히 감소해오다 2012년과 2014년에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한국 남성의 경우 2000년에 52.7시간, 2001년 52.7시간, 2002년 52.1시간, 2003년 51.5시간, 2004년 51.1시간, 2005년 50.4시간, 2006년 50.2시간, 2007년 49.3시간, 2008년 48.3시간, 2009년 48.4시간, 2010년 47.9시간, 2011년 46.7시간, 2012년 47.4시간, 2013년 45.8시간이었다.

◆한국 전체도 터키 이어 2위… 선진국과의 격차 커

남성과 여성을 모두 합한 한국 전체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00~2005년까지는 줄곧 1위였지만 2006년부터는 1위 자리를 터키에게 내줬다. 2014년에도 터키에 이어 2위였다.

한국 전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00년 51.1시간, 2001년 50.9시간, 2002년 50.3시간, 2003년 49.8시간, 2004년 49.4시간, 2005년 48.8시간, 2006년 48.5시간, 2007년 47.7시간, 2008년 46.6시간, 2009년 46.6시간, 2010년 45.9시간, 2011년 44.6시간, 2012년 45.3시간, 2013년 44.0시간, 2014년 44.5시간이었다.

나머지 OECD 회원국들은 대부분 40시간 이하였고, 유럽 선진국들은 35~38시간에 머물렀다.

◆1년 평균 근로시간도 한국 2위

한편 이번 통계에서 한국 전체 취업자의 2014년 한해 동안의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은 2124시간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였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주요 직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결과가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 취업자들의 근로 시간은 OECD 평균(1770시간)의 1.2배였으며 근로 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의 1.6배에 달했다. OECD 회원국보다 연간 평균 354시간 더 많이 일하는 셈이다.

한국은 2007년까지만 해도 OECD 회원국 가운데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지만 2008년 멕시코에 1위 자리를 넘겼다. 2000년 2512시간에서 매년 꾸준히 줄었지만 2012년과 2014년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송병형 기자 bhsong@

김기사 질주에 SK플래닛 "무임승차 그만"

정보폐기·피해보상 등 T맵 무단사용 訴제기 "모든 법적 수단 검토"

T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K플래닛이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김기사를 운영하는 록앤올에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SK플래닛은 록앤올을 상대로 T맵 전자지도DB 무단사용 중단과 관련 정보 폐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회사 측은 아울러 무단사용 기간에 발생한 피해금액 5억원을 보상하라고 함께 청구했다.

SK플래닛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1년부터 T맵의 주요 서비스를 플랫폼화해 공개하면서 당시 벤처기업이었던 록앤올과 최저 수준의 가격으로 T맵 전자지도DB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T맵 전자지도 DB는 지도표출용 배경지도 정보, 경로계산용 도로네트워크 정보, POI(목적지 명칭·주소), 안전운전 안내정보 등을 포함한다.

이후 양사는 지난해 2월 해당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 SK플래닛은 충분한 전자지도DB 교체 작업이 이뤄지도록 10개월간의 유예기간과 3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총 1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올 9월까지도 김기사 서비스에서 T맵 전자지도DB 고유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 SK플래닛의 설명이다.

SK플래닛 측은 "김기사 측이 독자적으로 전자지도DB를 구축했다면 지도, 도로, POI 등에서 T맵 고유의 워터마크가 전혀 없어야 한다"며 "공문을 보내, 계약에 따라 T맵 전자지도DB 사용을 중지하라고 요청했지만 김기사 측이 거부해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김기사 측은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상용지도를 토대로 독자적으로 제작한 것이어서 SK플래닛의 전자지도DB와 무관하며 일부는 국내외 다수의 지도 상 명칭을 참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SK플래닛의 명칭을 잘못 참조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지도DB 사용을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은 제기하지 않았다"며 "추후 김기사 측이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록앤올은 올 5월 카카오에 인수됐으며 현재 김기사 애플리케이션은 카카오택시에 기본 내비게이션으로 탑재돼 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롯데마트는 무인으로 빈병 회수 합니다'

2일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월드타워 점에서 한 고객이 무인 빈병회수기를 이용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빈병 회수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시범사업에 동참했으며 롯데마트 월드타워점, 도봉점, 구로점, 광교점에서 빈병 무인회수기 이용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STX뇌물' 정옥근 "돈 받은 적 없다"

<前 해참총장>

2심서 혐의 강력 부인 일식집 현장 검증 신청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장남 회사 광고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2·**사진**)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 전 총장 측 변호인은 "뇌물수수를 약속했다고 지목된 참모총장 집무실과 실제 뇌물수수가 이뤄졌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일식집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8월 서울 영등포의 해군복지근무지원단 내 참모총장 집무실에서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예비역 준장 이모(62)씨에게서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1억원 수수를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정 전 총장은 2009년 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이씨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변호인은 이씨가 1심에서 집무실 구조에 대해 정 전 총장의 전속부관 및 경호관과 다르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깨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씨가 일식집에서 부관이나 경호관을 한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이 역시 부관의 평소 업무 수행방식과 달라 진술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 진술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일식집에서 이씨가 부관 등을 마주치지 않은 게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날 변호인은 "STX에서 뇌물성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뇌물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총장은 STX조선해양으로부터 2회에 걸쳐 3억8000만원을 요트회사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지급받고 STX엔진에서도 2회에 걸쳐 3억8000만원씩 총 7억7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이후 STX 뇌물 혐의 이외에 해군 정보함 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총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열린다.

/유선준 기자 rsunjun@



LG전자는 최근 공기청정기와 프리미엄 가습기 통합 브랜드인 '퓨리케어'를 런칭하고 공기청정기 4종을 선보였다. /LG전자

쌀쌀한 날씨, 실내공기 잡아라

공기청정 가전 경쟁 후끈

LG·삼성·코웨이 등 신제품 앞다퉈 내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공기청정기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공기청정기는 황사 등이 심한 봄철에 주로 사용하는 가전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내 활동이 많은 겨울을 앞두고 가전 업체들이 공기청정기 신제품을 앞 다퉈 출시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공기청정기 신규 브랜드 '퓨리케어'를 론칭하고 신제품 4종을 출시했다. 퓨리케어 공기청정기는 국내 최초로 먼지 입자의 지름이 1㎛인 극초미세먼지를 감지 할 수 있는 PM 1.0 센서를 탑재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 등까지 잡아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사물인터넷(IoT) 기능으로 LG전자 가전제품의 스마트홈 서비스 전용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싱큐'로 외부에서도 실내 공기상태를 확인하거나 제어할 수 있다.

LG전자는 사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능이 탑재된 '2016년형 휘센 냉난방에어컨' 9종도 출시했다. 휘센 냉난방에어컨은 하나의 에어컨으로 난방, 냉방, 공기청정, 제습 등의 기능을 모두 갖췄다.

삼성전자도 냉방·청정·제습이 가능한 '스마트에어컨Q 9000' 신모델 2종을 내놨다. 난방 기능으로 기온이 내려가는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공기 청정 기능인 PM2.5 필터시스템으로 환기가 어려운 겨울철에도 깨끗한 공기 공급이 가능하다.

초절전 디지털 인버터 기능과 각각 조작할 수 있는 3개의 바람문 중 1개만 운전시 최대 80%까지 전기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다.

코웨이는 공기청정기와 IoT을 결합한 '듀얼파워 공기청정기'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집안 공기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다. 듀얼 필터 시스템을 적용해 공기청정 성능도 강화했다. 단면에서 공기를 흡입하는 기존 제품과 달리 4개의 필터가 양쪽에 2세트로 구성돼 양면으로 공기를 흡입하는 신개념 듀얼 필터 방식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KB 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은행부문 12년 연속1위

NBCI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자산관리부터 은퇴 후 인생까지

"KB국민은행의 은퇴설계 서비스로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세요"

국민의 은퇴·노후준비 파트너 **KB골든라이프**



노후설계 시스템
재무계획 및 비재무적 이슈까지
점검하여 노후설계

은퇴·노후설계 상담창구
KB국민은행 전국 850여개
영업점 VIP라운지에서
설계·상담 서비스 제공

행복노후설계 프로그램
행복노후설계 세미나 등
전문가의 은퇴·노후 준비
노하우 전수

다양한 은퇴 전용 상품
미래를 위한 『KB골든라이프
연금우대 통장/적금/예금』부터
각종 연금저축·보험상품까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 고객상담부(☎1588-9999) 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 국민은행

'해양플랜트 늪' 빠진 조선… 조 단위 적자

미청구 공사대금 17조원, '조선 빅3' 영업손실 8조원
통폐합 절차 통해 감축… 2016년 후반에야 회복될 듯


대우조선해양 해양플랜트 전문 건조구역.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해양플랜트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양플랜트 악재가 이어지면서 올해 국내 대형 조선 3사는 사상 처음으로 모두 조 단위 적자가 유력하다. 업계는 실적 개선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전망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4·4분기 국내 조선사들의 실적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양플랜트에서 미청구 공사대금이 17조원으로 알려지면서 업계는 적어도 내년 하반기나 돼야 실적이 나아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의 올해 영업 손실을 합치면 8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조선업계가 위기에 놓였다.

가장 심각한 곳은 대우조선이다. 대우조선의 올해 예상 영업 손실액은 5조2950여억원이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각각 1조1450여억원, 1조4040여억원의 영업손실이 확실시되고 있다.

대우조선은 올해 상반기 3조1999억원의 적자를 냈다. 하반기에도 2조951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 회사는 3·4분기에 1조217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4·4분기 추가로 1조원 이상의 적자가 현실화할 경우 누적 적자는 5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도 지난해 3조25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1·4분기 1924억원, 2·4분기 1710억원, 3·4분기 6784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어 4·4분기에도 103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183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삼성중공업은 올해 1조4040여억원의 영업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3·4분기에 영업이익 846억원을 내는 데 성공했으나 2·4분기에 1조5491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다.

조선 업계의 부진에 대해 대신증권의 전재천 연구원은 "유가의 추가 하락(해양 수주 약세 지속)과 선박 수주 둔화, 저수익 지속때문에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국내 조선 대형 3사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력과 조직, 수주가 대거 축소되고 중소 조선업체는 옥석을 가려 통폐합 절차를 통해 최대 1만여명이 2~3년 내에 감축될 전망이다.

조선사 해양플랜트 손실 마무리 시점에 대해 전 연구원은 "2016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이미 충분한 충당금을 쌓아 향후 추가 손실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다"며 "조선 대형 3사가 2011~2013년 수주한 해양생산설비는 2016~2017년 상반기 대부분 인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1인가구용 소형 김치냉장고 돌풍


동부대우전자가 지난 8월 출시한 소형 김치냉장고의 누적 판매량이 3만대를 돌파했다.
/동부대우전자

동부대우전자

8월 출시 후 누적 3만대
공간·에너지효율 뛰어나

동부대우전자는 지난 8월 출시한 소형 김치냉장고의 누적 판매량이 3만대를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출시한 다목적 동부대우전자의 소형 김치냉장고는 월 평균 2000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는 소형 김치냉장고 시장에서 30%가 넘는 점유율로 이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김치냉장고 시장은 전통적으로 대용량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1~2인 가구 급증에 따라 150L 이하 소형 김치냉장고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 5년간 매년 두 자리 수의 성장을 기록 중으로 업계는 올해에만 1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부대우전자의 다목적 김치냉장고는 102L 국내 최소형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로 기존 대용량 김치냉장고 대비 1/4보다 작은 크기로 공간효율성이 뛰어나다. 특화된 냉기 제어기술과 냉동고용 고효율 단열재 기술을 적용해 월간소비전력 11.50kWh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획득, 연간 에너지비용이 기존 제품 대비 50% 이상 절감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제품 전체를 냉동고, 냉장고, 김치냉장고로 변환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기능과 국내 최초로 1도어 스탠드 형태에 메탈 소재를 적용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투모로우 솔루션' 우수작 e-투표로 찾는다

삼성, 결선진출 30팀 대상

삼성전자가 오는 11일까지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 공모전 결선 진출 30팀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개투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삼성전자가 개최한 투모로우 솔루션 공모전의 인기상을 뽑기 위한 투표다. 투모로우 솔루션 투표페이지(http://vote.tomorrowsolutions.co.kr)에 접속 후 공모전에 참가한 1235개 팀 중 결선에 오른 30개 팀이 찾아낸 사회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살펴본 후 가장 마음에 드는 팀을 선택하면 된다. 한 팀에 중복으로 투표할 수 없으며, 여러 팀에 다중 투표는 가능하다.

또한 '공유하기'를 누르면 자신이 투표한 팀을 친구, 지인들과 SNS를 통해 공유하고 함께 응원할 수 있다.

투모로우 솔루션 공모전 인기투표 결과는 오는 13일 진행되는 시상식에서 발표되며, 인기상 수상 팀에게는 300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IT 제품이 수여된다.

투표에 참여한 300명에게도 추첨을 통해 커피와 도넛세트 기프티콘이 제공되며, 공모전 관련 자세한 소식과 이벤트 내용은 투모로우 솔루션 공식 홈페이지(www.tomorrowsolutions.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모로우 솔루션 공모전은 우리 사회의 현안과 불편함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직접 사회에 적용하는 공모전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다. 나이, 소속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결선에 오른 30개 팀 중 최종 수상팀들에게는 총 2억여원의 실현 지원금을 시상한다.

/정은미 기자


장애아동 가족과 효성 임직원 가족이 진행한 '사랑의 가족 캠프'에서 찐빵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효성, 11월엔 '미소원정대'

장애아동·임직원 가족
'사랑의 가족 캠프' 지원

효성이 장애아동 가족과 효성 임직원 가족이 동반 여행을 떠나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

효성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이천 자채방아마을 및 용인 한우랜드에서 진행된 장애아동 가족과 임직원 가족의 동반 여행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동반 가족 여행은 지난 4월 양평 보릿고개 마을에서 진행된 '사랑의 가족 캠프'의 하반기 행사다.

장애인 의료재활 전문기관인 푸르메재단과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임직원 열 가족과 효성을 통해 재활치료비 및 가족지원을 받은 장애아동·청소년 열 가족이 참가했다. 임직원 가족과 장애아동·청소년 가족이 한 가정씩 짝을 이뤄 1박 2일 동안 함께 다양한 활동을 체험했다.

31일에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자채방아마을을 방문해 벼 수확, 탈곡 및 도정 체험을 진행하고 이튿날에는 용인 한우랜드로 이동해 동물 먹이주기, 피자 만들기, 고구마 캐기 등 다채로운 활동을 경험했다.

장애아동·청소년 가족은 여행과 체험활동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긍정적인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시간을 가졌고 임직원 가족은 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을 직접 체험하면서 나눔 활동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참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조현상 효성나눔봉사단장(부사장)은 "효성은 장애아동과 청소년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가족여행이 참여한 가족들에게 행복한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효성은 대학생 글로벌 봉사단 '효성 블루챌린저'를 운영해 지난 8월 23일부터 일주일간 베트남 현지에서 적정기술을 통한 나눔 활동을 펼쳤으며 오는 11월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베트남 법인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미소원정대'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현대로템 '스크린도어' 날개 달고 흑자

부진 떨치고 상승세 지속
누적수주 1000억원 넘어

현대자동차그룹의 종합중공업 업체 현대로템이 상장 후 부진을 털어내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로템은 3·4분기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데 이어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주를 잇따라 따내며 누적수주 실적 100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현대로템은 세간의 우려와 달리 3·4분기 전 사업부문의 고른 성장으로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또 현대로템의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주도 탄력을 받고 있다.

현대로템은 지하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스크린도어의 누적수주 실적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이날 대구도시철도공사와 총 230억원 규모의 스크린 도어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달 23일 부산교통공사와 100억원 규모의 스크린도어 설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 수주한 대구 2호선 22개 역사에 설치될 스크린 도어 설치 공사로 현대로템은 오는 2017년까지 설계부터 제작, 설치, 시운전 등을 담당하게 된다. 현대로템이 부산 2호선에 설치할 스크린도어는 장산역, 모라역 등 총 11개 역사에 설치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지난 2005년 5월 서울 9호선 24개 역사에 밀폐형 신호연동 스크린도어 설치를 시작으로 같은 해 인천 1호선 송도 연장구간 6개 역사, 2006년 부산김해 경전철 21개 역사, 지난해 분당선 태평역 등 3개 역사까지 총 8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행했다. 특히 이번 대구 2호선과 부산 2호선 수주로 스크린도어 누적수주 실적이 100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현대로템이 공급한 서울 9호선 신논현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현대로템 관계자는 "차량뿐 아니라 전장품, 신호, 통신, 스크린도어까지 철도종합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국내 유일 기업으로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내년에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을 비롯해 향후 해외 입찰 참여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크린도어는 지하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일종의 안전문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안전문을 설치한 역사에는 승객의 추락, 투신 등으로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안전문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최근 3년간 사상자 108명(사망 61명)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국토부는 최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에 안전문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현대로템은 올 3·4분기 매출액은 전기 대비 8.8% 감소한 8482억원,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한 313억원을 기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착한 가격' 신형 K5 하이브리드, 대박 초읽기

동급최고 연비·성능 갖춰
가격 2824만~3139만원


기아자동차가 2일 사전예약을 시작한 신형 K5 하이브리드의 전측면 모습.

국내 친환경차 시장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기아자동차의 '신형 K5 하이브리드'가 판매 초읽기에 돌입했다.

기아자동차는 이번달 출시예정인 신형 K5 하이브리드의 주요 사양·제원과 가격을 공개하고 2일부터 전국 기아차 영업점을 통해 사전계약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신형 K5 하이브리드는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와 동력성능 ▲강력한 초기 가속성 등 실용 영역 중심으로 진일보한 주행성능 ▲동력성능을 대폭 개선해 차별화한 에어로다이나믹 콘셉트의 디자인 ▲제원 확대로 넉넉해진 트렁크와 실내 공간 등 모든 면에서 동급 최고의 상품성을 구현하면서도 가격은 오히려 기존모델보다 인하한 것이 특징이다.

신형 K5 하이브리드 가격은 ▲엔트리 트림인 프레스티지 모델은 기존 제품 대비 36만원 낮춘 2824만원에 출시하고 ▲주력 트림인 노블레스 모델은 47만원 낮춘 2937만원 ▲최상위 트림인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은 19만원 낮춘 3139만원으로 책정됐다. 단, 이 가격은 모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 후 판매 가격이다.

특히 주력트림인 노블레스 트림의 경우 ▲운전석 무릎에어백 ▲무선충전 시스템 ▲스마트 에어백&전복감지 센서 ▲발광다이오드(LED) 주간주행등(DRL) ▲주행모드 통합주행 시스템 등 고객 선호 사양을 대거 기본 적용했음에도 가격은 기존 동급 트림보다 47만원을 인하한 2937만원으로 책정해 더 많은 고객들이 K5 하이브리드의 경제성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차량 등록시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을 감면 받고 채권과 공채 또한 최대 200만원(서울기준)까지 매입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1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차량 취득 후까지의 비용을 감안하면 고객들은 동급 최고 연비와 첨단 기술로 돌아온 '신형 K5 하이브리드'를 더욱 착한 가격에 살 수 있다.

/양성운 기자

골프·티구안 등 7종, 이번엔 '에어백 결함'

전원공급 부품 이상에
내년초 2만7810대 리콜

폴크스바겐그룹의 디젤차 연비 조작으로 곤욕을 치른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가 이번엔 에어백 관련 결함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는 국내에서 내년 초 2만7810대를 리콜할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2010~2014년식 골프, 제타, CC, 파사트, 시로코, 티구안, 이오스 등 7종의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스티어링휠에 있는 클럭스프링이란 부품이다. 이 부품에 이상이 생겨 에어백에 전원을 공급하는 선이 끊어지면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결함 원인이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경고등이 뜨게 돼 있고 이번 결함과 관련한 사고가 국내에서 보고된 적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고 당장 리콜이 실시되기는 쉽지 않다. 개선된 부품을 공급받는데 시일이 걸려 이르면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폴크스바겐은 앞서 미국에서 같은 결함 때문에 42만대를 리콜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리콜은 미국에서 대량 리콜 사태가 일어난 다카타 에어백 결함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 조작 관련 리콜 대상은 28개 차종 12만5522대로 폴크스바겐 9만5581대, 아우디 2만9941대다. 이들 차량 역시 이르면 내년 1월께 국내에서 리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성운 기자

車결함, 허위 보고땐 1000만원 과태료

자동차 회사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 관련 결함의 시정조치 상황을 허위 보고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일 자동차 관련 결함의 시정조치 상황을 국토교통부에 허위 보고하거나 보고를 누락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이행 상황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자동차 제작자나 부품제작자 등이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결함 사실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경우 시정조치 계획을 사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진행 상황을 분기마다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에어백 결함 등으로 수입차 판매회사가 국토교통부에 시정조치 결과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양성운 기자

한국타이어

"겨울 타이어 구매하고 다양한 혜택 누리세요"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서승화)는 겨울철 안전한 드라이빙을 위한 겨울용 타이어 장착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타이어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전국 한국타이어 대리점에서 다양한 사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구매 고객 사은품 증정과 지인 추천 이벤트, 적설량 보증 제도 적용, 타이어 호텔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먼저 이벤트 대상 겨울용 타이어를 4개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영화 이용권 2매 또는 제과점 상품권을 현장에서 즉시 모바일을 통해 증정한다.

또 겨울용 타이어를 2개 이상 구매한 고객이 주변 지인을 추천해 함께 구매하면 타이어 우대권을 증정한다. 타이어 우대권은 17인치 초고성능 프리미엄 타이어 구매 시 5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규격은 30% 할인된 가격이 적용된다.

/양성운 기자

단통법 발목… 이통 3사, 3분기 실적 '울상'

영업익 SKT 8.6%↓·LGU+ 1.6%↓… KT는 매출↓
전문가 "당분간 개선 난항… 4분기 전망도 안갯속"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올해 3·4분기 동안 시장 전망치에 다소 못 미치는 실적을 거뒀다. 오는 4·4분기에도 깜짝 실적을 거둘만한 호재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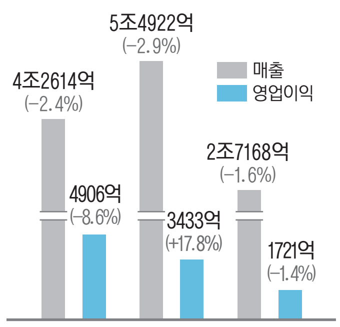
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올해 3·4분기 영업이익이 4906억원으로 작년 3·4분기에 비해 8.6% 감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매출도 4조 2614억원으로 2.4% 줄었다. 같은 기간 KT는 영업이익이 17.8% 늘었지만 매출이 2.9% 줄었고, LG유플러스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6%, 1.4% 줄었다. 누구도 전체 실적 면에서 활짝 웃지 못한 셈이다.

올해 3·4분기 실적은 작년 10월 1일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전과 후의 통신사 영업상황을 가장 뚜렷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으로 평가된다. 3·4분기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여서 전년 동기 실적을 보면 법 시행 전과 단통법 정착 후의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사들은 가입비 폐지, 상호 접속료율 인하, 20%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실적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입을 모았다. 기기변경 가입자가 늘면서 마케팅 비용도 상승했다.

이 같은 요인은 정부의 통신비 부담 경감 정책과 맞물려 있다. 통신 3사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가입비를 연이어 폐지했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상호 접속료율을 인하했다.

이통3사 3분기 실적 및 증감율



*증감율은 전년 동기 대비
*KT는 연결기준

다만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1인당 데이터 사용량도 눈에 띄게 증가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은 지난 2·4분기와 3·4분기에 보기 드물게 2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매출 감소를 겪었지만, 한 여름이 포함된 3·4분기가 계절적인 비수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한편 증권업계는 오는 4·4분기 통신사 실적이 크게 개선될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T는 매출액, SK텔레콤은 순이익, LG유플러스는 영업이익이 각각 작년 4·4분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지만, 단통법 시행과 데이터 요금제 출시의 영향으로 당분간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통신사들이 사물인터넷 등 사업을 다각화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LG '포켓포토' 韓·中서 100만대 판매

글로벌 판매량 80% 차지

LG전자는 모바일 포토 프린터 '포켓포토'가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2012년 9월 포켓포토를 국내 출시했고, 중국에는 이듬해 5월에 선보였다. 두 국가에서의 누적 판매량 100만 대는 글로벌 판매량의 약 80%에 이른다.

포켓포토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약 130만 대로, 하루 평균 1000대 이상씩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포켓포토는 아날로그 감성의 제품으로 LG전자가 지난 2010년 사내공모전에서 한 직원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탄생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곧



2일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모델들이 '포켓포토'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바로 인쇄해서 친구와 나눠 갖고, 기존 즉석카메라와 달리 인화했을 때의 사진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는 니즈를 반영한 것.

LG전자는 일반 인화지 외에 스티커 인화지도 출시해 모바일 프린터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었다. 또 사진틀, 배경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꾸미기 기능, 사진에 이모티콘이나 메모를 추가하는 메시지 기능 등을 탑재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SKT-대전창조센터
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대전센터)와 SK텔레콤이 미국 실리콘밸리와 사우디에 이어 중국에서도 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

대전센터와 중국 차이나유니콤 인큐베이션센터는 오는 10일 중국 상해 차이나유니콤 인큐베이션 센터에서 대전벤처 중국 진출 거점 구축을 위한 '한중혁신기지' 현판식을 갖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대전센터가 인큐베이팅하는 드림벤처스타(DVS) 2기 4개 벤처와 브라보 리스타트 3개, 중국 업체 4개 등 총 11개 업체들이 참가하며 국내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입주 벤처기업이 해외에서 대규모 공식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는 첫 사례다.

대전센터 입주 벤처들은 기업설명회(IR) 이후 중국제조 스타트업의 중심이자 차세대 사물인터넷(IoT) 하드웨어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국 심천의 창업생태계를 11월 11일~14일까지 탐방할 예정이다. /정문경 기자

리커창 中총리,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IoT 협력 강화…한·중이 세계 표준화 선도"

황창규 KT 회장
ICT 융합 협력 강조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리커창 중국 총리가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경기센터)를 방문해 한국의 대표적인 창조경제 모델을 시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일 KT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리 총리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센터는 리 총리 일행에게 정부와 대기업, 지방정부의 협력 시스템을 통한 개방형 혁신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탄생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탄생 배경을 알렸다.

또 경기센터가 지역 경제의 혁신 거점이자 창업 허브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로서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점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리 총리는 황창규 KT 회장으로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고, 한국형 창조기업들의 현황을 살펴봤다. 황 회장은 리커창 총리에게 한국형 창조경제 모델의 특징으로 대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황 회장은 "한국 창조경제혁신



황창규 KT 회장(앞줄 왼쪽 첫번째)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앞줄 가운데)가 지켜보는 가운데 2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리커창 중국 총리에게 센터 내 보육기업인 울랄라랩의 위콘(WICON)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KT

센터 모델은 센터마다 매칭된 대기업이 육성기업에 대한 투자, R&D, 사업모델 수립, 판로지원 등 사업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며 "KT는 경기센터를 전담하는 기업으로서 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센터를 돌아보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보육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소개를 받고 면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미국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이리언스의 경우 홍채인식 알고리즘을 통한 전자금융 핀테크 기술을 소개했다.

이리언스(경기센터)는 홍채로 카드결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다. KT가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공동 사업개발과 영업을 추진 중이라는 실질적 지원사항이 소개되자 참관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이외에도 라온닉스(포항센터)는 순식간에 500도까지 발열시킬 수 있는 투명 전도성 발열 신소재 기술을, 나래트렌드(세종센터)는 스마트팜 관련 복합환경 제어장비와 전자영농일지 시스템을, KPT(충북센터)는 구슬 화장품 기술을 리 총리 일행에게 선보였다.

이날 리 총리는 "한·중이 ICT 협력을 하고 있는데 IoT에서도 생산, 표준, 생태계, R&D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세계 시장을 개척하자"고 밝혔다. /정문경 기자

“체질 바꾸고 속도 높여 ‘넘버원 KB’ 탈환”

KB국민은행 창립 14주년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

재도약의 중요한 전환점 영업·인사 등 전반 재정비 1등 기업 조직문화 만들것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 /KB국민은행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은 “체질을 바꾸고 몸을 가볍게 해야 경쟁은행과의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는 ‘스피드와 지구력’을 갖출 수 있다”며 “꾸준한 체질 개선을 통해 ‘넘버원 KB’를 향해가자”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민은행 창립 14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1등 기업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재도약을 향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다”며 “소기업금융, 자산관리 서비스 등 핵심 비즈니스 기반을 강화하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건전성을 높여 대손 비용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등 경영체질 개선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그는 KB손해보험과의 합병, 글로벌커버드본드(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 5억 달러 발행 등을 성과로 꼽고 “모바일 금융 환경이 가져올 ‘적자생존(適者生存)’의 변화를 극복하고 ‘1등 은행’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고객의 경제적 행복 추구’를 사명으로 삼고 ‘열린 조직’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회장은 “제가 취임하면서 여러분께 약속드린 청탁이 통하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에 대한 믿음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며 “청탁 없는 인사 청정 기업이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지금 우리가 함께 하는 여정은 1~2년의 ‘단거리 승부’가 아니다”며 “경쟁은행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묵묵히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운영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영업, 인사, 조직 등 조직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스트(비용)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코스트 관리’는 생존을 위한 수익성 방어의 핵심”이라며 “세분화된 리스크 관리를 통한 ‘크레딧 코스트(Credit Cost)’ 감축과 ‘코스트 다이어트(Cost Diet)’ 노력도 중요하지만 ‘비가격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하루라도 빨리 적정 마진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영업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회장은 “프로정신과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1등의 규율과 문화’에 익숙해질 때 한국금융의 영원한 ‘넘버원 KB’로 남게 될 것”이라며 “외부의 도전에 어떻게 응전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며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손보 “우리도 헬스케어 허용해 달라”

서비스제도 근거마련 추진 현행 의료법상 진입 안돼 정부에 도입 필요성 건의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규모 전망> 단위 : 억 달러, 자료 : IMS Health

연 도	예 방	진 단	치 료	사후관리	계
2010년	2,140	5,700	24,240	3,560	35,640
2015년	3,980	9,190	31,420	5,100	49,690
2020년	6,860	14,400	39,110	8,230	68,600
성장률(%)	12.4	9.7	4.9	8.7	6.8

국내 손해보험업계가 100세 시대에 맞춰 헬스케어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헬스케어서비스는 건강 유지와 증진, 질병의 사전예방 등을 목적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부가적 서비스 일체를 말한다.

고령화, 예방·관리 니즈 확대, 디지털화 등에 따른 의료 개념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은 글로벌 핵심 비즈니스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전 세계 ICT 융합 헬스케어 시장이 연평균 12~16%의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총 시장규모가 약 16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규모는 올해 4조9690억달러에서 2020년 6조86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헬스케어서비스 도입이 대두되는 배경은 고령화 등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비 관리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가 필요해서다.

보험사 헬스케어서비스는 현행법상 부수업무나 자회사를 통한 제공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개설자격 규제로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손보업계에서는 헬스케어서비스법 제정을 통한 환자 외 건강군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헬스케어 기관 설립에 대한 자격이 완화될 경우, 현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과 관련된 조사·분석·조언 업무’에 해당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를 영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업계는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보험사들은 이미 웨어러블 디바이스 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글로벌생명보험사인 시그나의 경우 헬스케어 자회사 운영과 제휴를 통해 26개의 체중·식단관리,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참가비 할인과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헬스케어서비스 도입 필요성에 대한 건의사항을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최근 전달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업계가 정부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당사자로서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민영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의료보험 상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헬스케어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질병 예방,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산업은 수십 년간의 건강보험 취급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이 높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필 기자 roman@



우리은행

수수료 면제·사은품 등 첫 거래고객 이벤트 실시

우리은행은 12월 말까지 현재 추진중인 민영화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리테일 고객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첫 거래 고객에게 다양한 우대혜택과 사은품을 제공하는 ‘첫거래 고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첫거래 고객 이벤트’는 10월 30일 현재 우리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마케팅활용 동의와 우리은행 입출식통장과 체크(또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사은품과 함께 3개월간 수수료 무제한 면제, 신용대출 0.3%포인트 금리우대와 환전시 80%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추가로 우리은행 모바일뱅킹인 위비 앱 설치, 사이버증권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 활성화 시 다양한 경품행사도 참여 가능하다.

한편, 우리은행은 첫거래 고객이 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연 3.0%의 높은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우리첫거래적금’도 출시했다. 1인1계좌 가입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3년, 월 30만원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적립 가능하다.

/김문호 기자 kmh@

9월 경상수지 106억 달러… 43개월 째 흑자

작년比 수출 10.8%↓ 수입 23.2%↓ 불황형 흑자 지속… 우려 목소리도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43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지만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 감소폭이 더 큰 ‘불황형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국제수지(잠정치)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06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흑자 폭이 8월(84억달러)보다 22억1000만 달러 늘었고, 작년 동기(74억5000만 달러)와 비교하면 31억6000만 달러 증가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2012년 3월부터 43개월째 계속되면서 최장 흑자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과 수입이 함께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9월 수출은 452억7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0.8% 감소했지만, 수입은 332억1000만 달러로 작년 9월보다 23.2% 줄었다.

불황형 흑자는 원화가치를 올려 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비스수지는 17억3000만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전월(13억4000만달러)보다 늘었다. 여행수지는 7억1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쓴 돈보다 해외에서 쓴 돈이 많았다는 의미다. 적자 폭은 전월(10억6000만 달러)보다 줄었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품·서비스 거래가 없는 자본 유출입을 보여주는 금융계정의 유출초(자본이 국외로 나간 것) 규모는 106억 달러로 전월(91억5000만 달러)보다 확대됐다.

/이정필 기자

'3조원대 월척' 대우증권… 누가 낚을까

증권업계에 다시 인수·합병(M&A) 바람이 불고 있다. 업계의 M&A 최대어로 꼽히는 대우증권 인수전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자기자본 2위인 대우증권을 품으면 단숨에 업계 1위에 오른다. 이에 따라 대우증권을 잡기 위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간 '전쟁'이 예상된다.

증권업, M&A에 길을 묻다 ❶

KB금융·미래에셋·한투 지주 "잡으면 1위다" 3파전 팽팽

대우증권 노조도 입찰 나서 내년초 '새주인 확정'될 듯

KDB대우증권 매각 본게임이 닻을 올렸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DB대우증권 인수를 위한 예비입찰에 KB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예상대로 예비입찰서를 제출했고 대우증권 노조가 주축이 된 우리사주조합도 입찰에 참여했다.

시장에서는 KB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3파전을 예상하고 있다.

자기자본 기준 업계 2위(4조2581억 원)인 대우증권을 인수하면 순식간에 증권업계 1위로 뛰어오를 수 있는 만큼 가격싸움도 볼거리다.

◆가격 싸움, 최대 3조원까지

매각 대상 지분은 산은 보유 대우증권 지분(43.0%)과 산은자산운용 지분(100.0%)이다.

이중 대우증권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자본총계가 4조3049억원으로 NH투자증권(4조4954억원)에 이어 업계 2위의 증권사다. 덩치 뿐만 아니라 103개의 전국 영업점을 갖췄고 투자금융(IB)사업과 주식위탁매매(브로커리지)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메가톤급 매물'로 인수자는 곧바로 시장의 선두권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

시장의 관심은 매각 가격에 쏠리고 있다.

대우증권의 산은 매각 지분(43%)의 시장 가치는 1조5000억 원 안팎이다. 여기에 30%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해지고 경쟁이 과열될 경우 매각 가격이 3조원 가까이 치솟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따라서 자금력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 하겠지만, 경쟁이 치열한 만큼 가격은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구조조정 우려 등을 들어 KB금융과의 합병을 선호하는 대우증권 내부 분위기도 변수다. 대우증권 노조는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내고 "대형사 간의 합병이 이뤄질 경우 각 증권사에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이는 증권 노동자의 생존권에 큰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은행 내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금융자회사 매각추진위원회'를 통해 본입찰 적격자를 선정한다.

본입찰 적격자로 선정된 곳은 3~4주에 걸쳐 대우증권에 대한 예비실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내달 초로 예상되는 본입찰에 참가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상세실사, 가격 협상 등이 진행되고 나면 내년 상반기에 대우증권의 새 주인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누가 유리할까

KB금융그룹과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모두 한치의 양보 없는 싸움이 예상된다.

KB금융은 대우증권을 인수해 명실상부한 국내 1위의 금융그룹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국내 최대 금융그룹이지만 증권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B금융 계열인 KB투자증권은 올해 상반기 자기자본 기준 업계 17위에 불과한 중소형 증권사다. 윤종규 회장은 최근 KB금융 설립 7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며 대우증권 인수를 통해 '국민을 부자로 만들기',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B금융은 일본 미즈호파이낸셜그룹과 미국 BOA메릴린치를 롤모델로 삼고 이번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이들은 은행과 증권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KB국민은행과 대우증권의 9월말 기준 점포수는 각각 1154개, 102개이다.

미래에셋증권은 대우증권 인수로 글로벌 증권사 도약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유상증자를 통해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수혈해 대우증권 인수에 필요한 '실탄'을 충전했다.

미래에셋은 자산관리·연금 부문에 강점을 갖고 있다. 소매금융 및 기업금융(IB)에서 경쟁력 있는 대우증권을 품에 안는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많은 해외지점(12개)을 보유한 대우증권의 영업 기반 역시 이들 증권사의 해외시장 확장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한국금융지주도 자본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곳이다.

업계 4위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어 대우증권 인수에 성공할 경우 국내 증권업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다. 자기자본 3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투자증권이 대우증권과 합치면 7조5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증권사가 탄생한다. 한투증권은 지난 2005년 동원증권을 인수해 업계 선두권으로 성장한 저력을 갖고 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한국증권, 펀답 출시 한국투자증권은 2일 쉽고 재미있는 금융상품거래 어플리케이션 '펀답(Fundapp)'을 새롭게 선보였다. '펀답(Fundapp)'은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챔피언 펀드케어 서비스' 개시

유진투자증권은 펀드투자 고객의 보유 펀드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주는 '챔피언 펀드케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챔피언 펀드케어서비스'는 기존의 펀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고객이 가입한 펀드에 대해 정기적으로 잔고, 수익률, 만기 등 기본정보는 물론 펀드 현황을 분석, 지속투자 여부에 대한 투자의견을 적극 제시하는 서비스다.

영업점 프라이빗뱅커(PB)가 직접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시장 환경과 고객 성향에 따라 보유 펀드에 대해 '유지, 관찰 및 매도'의 구체적인 투자의견을 정기적으로 제시한다.



유진투자증권은 펀드투자 고객을 관리해 주는 '챔피언 펀드케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진투자증권

투자의견 도출을 위한 펀드평가시스템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1차적으로 외부 평가기관의 분석결과를 활용해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추가적인 내부 2차 정성평가를 통해 펀드별로 최종 의견을 도출한다.

이재길 금융상품실장 상무는 "이 서비스는 정보제공 시차를 최대한 줄이고 개별 펀드 단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해 고객들이 적시에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주식 거래때 거액 주문실수 이르면 내년부터 구제 가능

예상손실액 100억원 넘고 발생 30분 내 신청시에만 거래소 직권으로 사후 조정

이르면 오는 2016년부터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가 실수로 매매주문을 내 거래가 체결될 경우 대량 거래에 한해 구제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대량 투자자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량투자자 착오거래 구제제도는 지난해 파생상품 시장에 처음 도입됐다. 투자자 실수로 본래 의사와 다르게 거래가 성사됐을 때 거래소가 직권으로 사후 구제에 나설 수 있다.

단 예상손실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착오거래 발생 시점부터 30분 안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 등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제도는 주문 실수로 막대한 손실을 본 뒤 파산한 한맥투자증권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말 코스피 200 12월물 옵션을 주문하면서 직원의 주문 실수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460억원대의 손실을 본 뒤 영업인가와 등록이 취소됐다. 작년 2월에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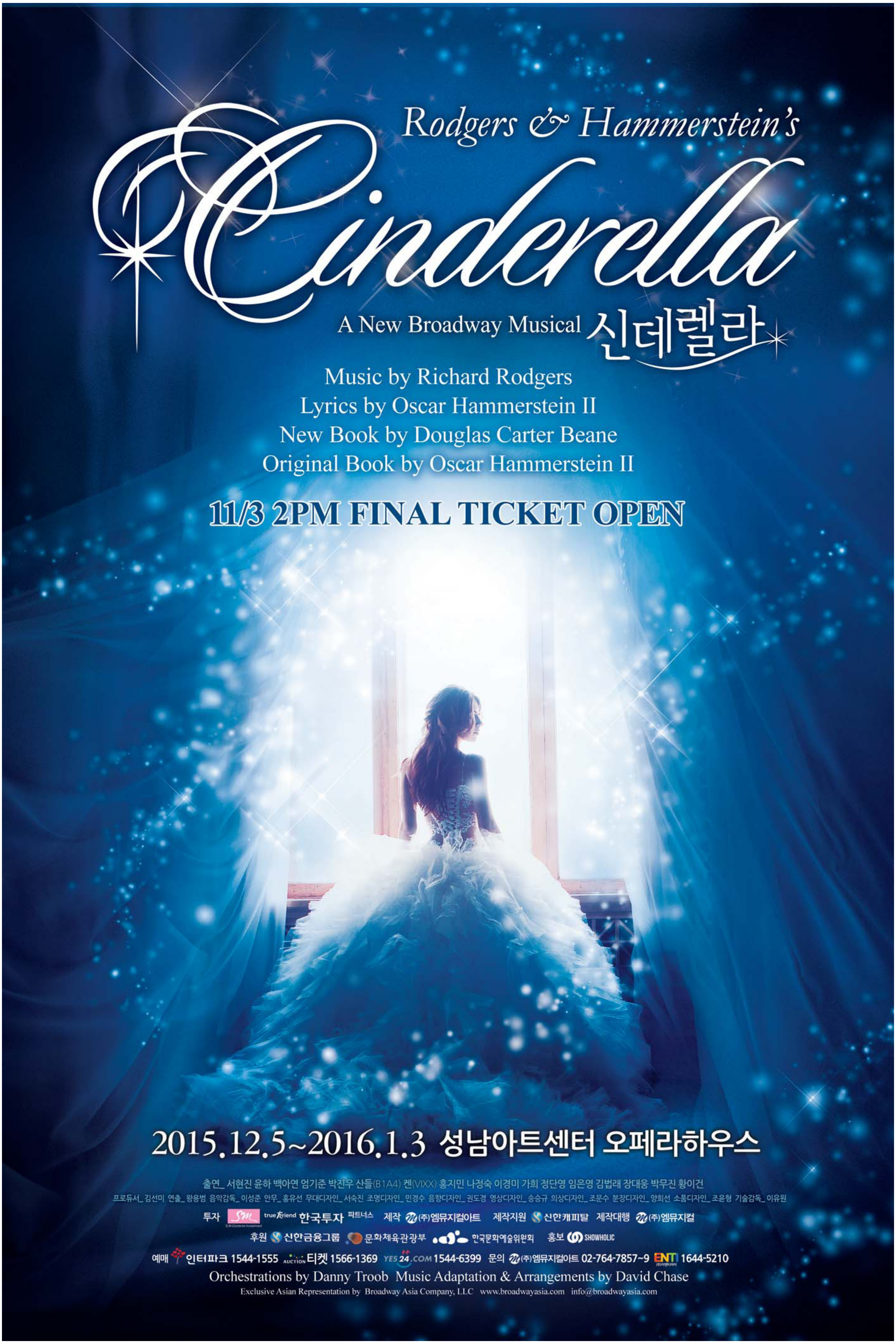
현물 주식시장의 경우 파생상품 시장에 비해 레버리지가 낮아 착오매매에 따른 대규모 손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6월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되면서 업계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래소 업무 규정 개정안이 이달 초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과하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현재 파생상품 시장의 업무 규정을 토대로 현물 주식시장 구제제도의 세부 요건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개발 진척 상황에 따라 세칙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Rodgers & Hammerstein's
Cinderella
A New Broadway Musical 신데렐라
Music by Richard Rodgers
Lyrics by Oscar Hammerstein II
New Book by Douglas Carter Beane
Original Book by Oscar Hammerstein II
11/3 2PM FINAL TICKET OPEN
2015.12.5~2016.1.3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출연_ 서현진 윤하 백아연 엄기준 박진우 산들(B1A4) 켄(VIXX) 홍지민 나정숙 이경미 가희 정단영 임은영 김법래 장대웅 박무진 황이건
프로듀서_ 김선미 연출_ 왕용범 음악감독_ 이성준 안무_ 홍유선 무대디자인_ 서숙진 조명디자인_ 민경수 음향디자인_ 권도경 영상디자인_ 송승규 의상디자인_ 조문수 분장디자인_ 양희선 소품디자인_ 조윤형 기술감독_ 이유원
투자 SM true friend 한국투자 파트너스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신한캐피탈 제작대행 (주)엠뮤지컬
후원 신한금융그룹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보 SHOWHOLIC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YES24.COM 1544-6399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 1644-5210
Orchestrations by Danny Troob Music Adaptation & Arrangements by David Chase
Exclusive Asian Representation by Broadway Asia Company, LLC www.broadwayasia.com info@broadwayasia.com

재개발 활기… 강북 '블루칩 3인방' 초미관심

10월 말 매매가·전세가율 서울 평균 넘어… 성북 1위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마포·성동구 등 주목

<성북·마포·성동구 강북권 블루칩 '3인방' 단지개요>

단지명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마포자이3차	서울숲리버뷰자이
위치	성북구 길음동	마포구 염리동	성동구 행당동
총세대수(일반분양)	2,352(336)	927(436)	1,034(294)
전용면적(일반분양 기준)	59~109㎡	59~119㎡	59~141㎡
입지 특징	59~109㎡	59~119㎡	왕십리역 도보 5분, 일부 세대 한강조망
3.3㎡당 평균분양가	미아사거리역 초역세권, 현대, 롯데백화점, CGV 등 도보권	5호선 애오개역, 6호선 대흥역 인접	2,200만원 대
청약일정	11월 4일 1순위, 5일 2순위 청약접수		

※ 위 내용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 각 사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견본주택이 방문객으로 붐비고 있다. 단지는 올해 공급되는 재건축·재개발 물량 가운데 소형 타입인 59㎡가 가장 많이 공급돼 수요층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삼성물산

광화문으로 출근하며 서울 녹번동에 전세로 살고 있는 김모씨(37·남)는 지난 주말을 이용해 부인, 4살된 딸아이와 함께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견본주택을 찾았다. 최근 재개발 호재로 매매가가 오르고 있어 이참에 내 집을 마련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서울 강북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북권은 올해 재개발 호재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를 주도하고 있지만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저렴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또한 올해 공급된 재개발·재건축 단지 가운데 전용 59㎡ 소형 타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10월 말 기준 성북구와 마포구, 성동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9월 대비 각각 7.25%, 6.89%, 6.16% 상승했다. 이는 서울 집값 평균상승률(6.09%)보다 높은 것이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역시 서울 평균보다 높아 매매전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성북구가 82.4%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성동구와 마포구는 각각 77.7%, 75.5%로 서울 평균(69.1%)보다 높다.

업계 관계자는 "뉴타운·재개발 직권해제 이후 서울 도심 내 대규모 뉴타운, 재개발에 대한 희소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도심 신흥주거타운에 새 아파트 분양이 대거 몰려 있어 서울에서 내집마련을 기다렸던 수요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강북지역 분양이 본격화됐다. 강북 재개발 대표 지역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 성북구 길음뉴타운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마포구 아현뉴타운 '마포자이3차' 등이다.

서울숲리버뷰자이(행당6구역)는 사흘간 2만5000여명이 다녀갔고, 래미안 센터피스는 2만2000여명, 마포자이 3차는 1만7000여명이 견본주택을 방문했다. 수요층의 관심이 높았던 이유는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가 꼽혔다.

서울숲리버뷰자이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2200만원이다. 전용면적별로는 59㎡ 5억7471만~6억1531만원선. 물량이 가장 많은 84㎡는 6억7242만~7억4927만원선이다.

인근 입주 3년차 아파트인 래미안 옥수 리버젠은 59㎡ 6억3000만원, 84㎡ 8억2000만원선이며 래미안 하이리버는 59㎡ 5억4500만원, 84㎡ 6억8000만원선이다.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는 3.3㎡당 평균분양가가 1650만원대로 인근 길음뉴타운 8·9단지보다 3000만~4000만원 가량 낮다. 여기에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대출 지원까지 제공해 가격 부담을 낮췄다.

마포자이3차 평균분양가는 3.3㎡당 2000만~2300만원선. 전용면적별로 59㎡ 2300만원대(5억3700만~5억9800만원), 84㎡ 2100만원대(6억3900원~7억2000만원), 119㎡ 2000만원대(9억6000만~10억원)로 책정됐다. 인근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59㎡ 6억4500만원, 84㎡ 7억9000만원 수준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 1만1470건… 9년來 최대

지난달 보다 26.2% 증가 동작구 92.2% 늘어 '최고'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이 지난 2006년 10월 이후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일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만1470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 9090건보다 26.2%(2380건) 증가한 수치며 2006년 1만9372건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10월 1만830건과 비교하면 6%(640건) 가량 늘어났다. 최근 10년간 거래량이 가장 적었던 2008년 10월 2290건과 비교했을 때는 거래량이 400% 가량 치솟았다.

10월 매매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동작구로 9월 361건에서 694건으로 92.2% 늘었다. 이어 노원구가 909건에서 1264건으로 39% 늘어났고 ▲성동구317→426건(34.3%) ▲종로구 57→87건(34.1%) ▲관악구 283→372건(33.7%) ▲마포 318→405건(27.3%) ▲강서 692→891건(27%) ▲양천 458→579건(26.4%)·은평 250→316건(26.4%) ▲도봉 418→521건(24.6%) ▲용산구152→184건(21%) 순으로 이어졌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도 아파트 거래량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구의 매매거래는 9월 423건에서 10월 622건으로 47% 늘었고 서초구는 367→485건(32%), 송파구 545→698건으로 28.2% 증가했다.

거래량으로는 노원구가 1264건으로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1000건을 넘었다. 이어 강서(881건), 송파(699건), 강남(622건), 양천(579건), 성북·구로(551건), 도봉(521건), 강동구(500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단독·다가구주택(2136→2209건)과 다세대·연립주택(4824→5732건)의 10월 거래량도 9월보다 각각 3.4%, 18.8% 늘었다.

/박상길 기자

GS건설 '충주시티자이' 1596가구 이달 분양

GS건설은 이달 초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일대 충주기업도시 1블록에 충주시티자이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15~20층 20개 동 전용면적 59㎡~84㎡ 1596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충주시에서 단일 규모로는 최대 단지다.

전용면적별로 ▲59㎡A타입 660가구 ▲59㎡B타입 316가구 ▲72㎡타입 284가구 ▲84㎡ 336가구 등이다. 전 평형이 84㎡ 이하로 실수요자 중심단지다.

전 가구 4베이 설계를 적용했으며 단지 3면이 녹지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또한 단지가 3단으로 배치돼 전 가구 남향으로 채광과 통풍·조망이 좋다. 단지에는 주민 공동 시설을 특화한 커뮤니티 공간인 자이안센터가 들어선다. 자이안센터에는 피트니스센터는 물론 맘스카페·키즈룸·골프연습장·사우나·독서실 등 편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교통 여건도 좋다. 국도를 통해 충주 시내권 진입이 원활하고, 충주IC, 중부내륙고속도로와 평택제천고속도로를 이용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쉽다. 기존 충주와 북충주IC 외 충주 하이패스 IC가 2블럭 바로 인근에 생길 예정이다.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서관 부지가 있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 최근 용전초등학교의 신설이 승인됐으며 2018년 3월 개교 예정돼 있다. /박상길 기자



SK건설은 지난달 31일 사회적기업 '떡찌니', 비영리단체 밀알복지재단 등과 서울 강남구 밀알학교에서 희망메이커 쿠킹클래스 행사를 열고 저소득가정에 떡 샌드위치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SK건설

"희망 담은 떡·케이크 전해요"

SK건설 희망메이커 쿠킹클래스

SK건설은 지난달 31일 사회적기업 '떡찌니', 비영리단체 밀알복지재단 등과 서울 강남구 밀알학교에서 희망메이커 쿠킹클래스 행사를 열고 저소득가정에 떡 샌드위치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일 밝혔다.

희망메이커는 임직원의 기부금으로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고 후원 대상자와 교류 활동을 하는 SK건설의 사회공헌활동이다.

행사에는 SK건설 임직원과 희망메이커 후원 대상자 35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3시간 동안 떡 샌드위치와 케이크 등을 만들어 인근 저소득가정과 SK건설 국내현장, 참가자 가족에 전달했다.

한편 SK건설은 2011년부터 전국 저소득 가정 아동, 청소년 690명에게 생계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박상길 기자

백화점서 '미리 크리스마스' 만나볼까

선물 든 북극곰·은하수 조명·트리 등 때 이른 단장
현대百판교점엔 국내 최초로 '티파니 트리' 전시도



한화갤러리아 명품관에 설치된 불꽃트리. 밤에는 불꽃놀이를 연상시키며 낮에는 금빛으로 변해 고객에게 특별한 포토존을 제공한다. /한화갤러리아

백화점이 때이른 크리스마스 단장을 시작했다. 두달 가까운 시간이 남았지만 백화점가는 특수를 겨냥해 일찌감치 준비에 나섰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편의점, 외식기업들이 수능과 빼빼로데이를 겨냥한 마케팅으로 백화점은 11월의 '미리 크리스마스'로 분주하다.

백화점별로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선정하고 이와 어울리는 화려한 장식이 한창이다.

롯데백화점은 소공동 본점을 시작으로 이번주까지 각 점포 내·외부 크리스마스 시즌 분위기로 단장한다. 지난해 롯데백화점의 크리스마스 주인공은 '루돌프'였지만 올해는 북극곰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롯데백화점 '러블리 크리스마스'

롯데백화점은 '러블리 크리스마스'(Lovely Christmas)를 주제로 왕관을 쓴 하얀 북극곰이 빨간 선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북유럽 스칸디나비아풍으로 표현했다. 본점 신관부터 에비뉴엘관까지 약 200m에 달하는 외관에는 노란색 LED조명으로 은하수를 재현했다. 본점 대형 쇼윈도에는 무빙모터를 설치한 곰, 여우, 펭귄 등 겨울을 상징하는 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백화점 내부도 '러블리 크리스마스' 주제에 맞는 다양한 소품 등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꾸며졌다.

오는 13일부터 크리스마스 끝나는 연말까지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롯데백화점이 연결되는 지하광장에는 '러블리 크리스마스 부스'가 설치된다. 부스 내부는 북극곰 캐릭터 상품 전시와 함께 애니메이션 영상, 포토존 등으로 구성된다.

◆한화갤러리아 '플라이 미투더 크리스마스'

한화갤러리아의 갤러리아명품관은 지난 1일부터 '플라이 미투더 크리스마스'(Fly me to the Christmas)를 테마로 한 불꽃트리가 설치됐다. 불꽃트리 조형물은 총 7개로 구성됐으며 각 트리는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5가지 키워드 LOVE·HOPE·FAMILY·GIFT·GIVING을 불꽃 디자인으로 형상화했다.

불꽃 트리는 밤에는 불꽃 축제를 연상시키며 낮에는 금빛으로 색을 변모해 고객에게 특별한 포토존을 제공한다. 불꽃 트리 옆에는 산타가 거대한 열기구를 타고 선물을 전해주기 위해 출발하는 동화적 요소를 가미한 조형물을 선보인다. 하늘로 쏘아 올린 불꽃트리와 열기구 아래에는 63채의 집으로 구성된 산타마을이 조성됐다.

◆현대百 판교점, 국내 최초 '티파니 크리스마스 트리'

럭셔리 브랜드 티파니가 3일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국내 14번째 매장을 오픈한다.

현대백화점은 이를 기념해 오는 이달 1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판교점 1층 광장에서 '티파니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전시한다. 티파니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전시는 국내 처음이다.

티파니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는 2010년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광장, 2011년 영국 런던 서머셋 하우스, 2012년 홍콩 황후상 광장, 2013년 싱가포르 오차드 로드 등 매년 크리마스기간 전 세계 주요 랜드마크에 전시됐다.

트리는 가로 4m, 세로 7m의 대형 트리로 티파니의 상징인 '블루박스'와 각종 장식으로 화려하게 장식된다. 트리 주변에서는 블루박스가 가득 담긴 썰매와 뉴욕을 상징하는 조형물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전시 시작일인 10일과 크리스마스 연휴 주말(12월 19일~25일)에는 산타크로스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설치될 예정이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KFC, 치킨과 피자가 만난 신제품 '치짜' 출시 치킨 전문 브랜드 KFC가 2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점에서 통살 치킨위에 베이컨, 양파 등 풍성한 토핑을 얹은 신메뉴 '치짜(chizza)'를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휴대폰 대면 장바구니로!

티몬, NFC기반 '슈퍼태그' 선봬



티몬은 NFC(Near Field Communication·근거리 무선통신)가 내장된 작은 태그에 휴대폰을 가까이 대면 해당 제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생필품 구매 솔루션 '슈퍼태그'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슈퍼태그는 티몬이 핀테크 전문 스타트업 한국 NFC와 공동 기획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 서비스다. 슈퍼태그 서비스는 티몬앱 이용자라면 별도의 앱을 다운로드할 필요없이 NFC 읽기·쓰기 기능을 가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면 바로 구동이 가능하다. 필요상품 태그에 휴대폰을 갖다 대기만 하면 티몬앱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담긴다.

슈퍼태그는 자석 형태로 제작돼 냉장고나 화장실 휴지 주변에 쉽게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슈퍼태그는 삼다수, 크리넥스, 퍼실, 너구리 등 티몬 내에서 반복구매가 잦은 4개 생필품 브랜드로 구성됐으며 향후 생필품 중심으로 종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현 기자

롯데마트 "야채와 함께 올해 첫 '과메기' 즐기세요"



롯데마트는 오는 4일부터 전국 점포에서 올해 첫 과메기 판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또 '과메기 야채 기획'(꽁치 과메기 200g·야채 100g)을 1만2800원에 판매한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이는 과메기는 포항시가 인증한 포항 구룡포 과메기 특구 상품을 우선 공급받아 상품 신선도가 높다.

롯데마트는 다시마, 깐마늘, 풋고추 등 과메기와 함께 곁들이는 채소도 이달 4일부터 일주일간 정상가 대비 10%가량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김성현 기자

이번엔 'EXO 빼빼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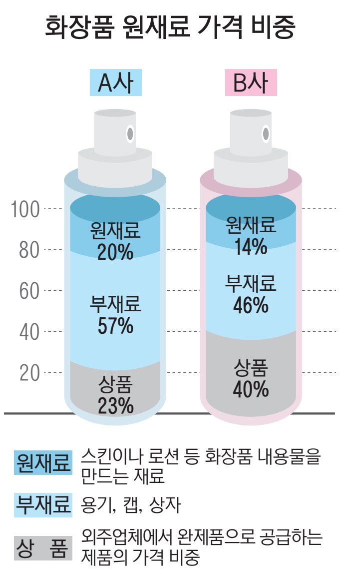
11번가, 8일까지 한정 판매

11번가는 빼빼로데이(11월 11일)를 앞두고 아이돌그룹 EXO를 모델로 활용한 'EXO 빼빼로'를 한정수량 단독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이달 8일까지 진행되는 '11번가 X 롯데제가 EXO 빼빼로' 기획전에서는 'EXO 빼빼로 18개입'을 1만3900원에, 'EXO 빼빼로 36개입'은 2만5900원에 판매한다.

구매고객에게는 EXO 멤버들의 사진이 프린트 된 스티커를 증정한다. /김성현 기자

화장품 제조원가 절반이 포장재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전자공시시스템 분석 원재료 비중 20% 밑돌아 스킨·로션류 가장 낮아

화장품에서 가장 비싼 원료는 뭘까.

정답은 용기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용기와 용기를 닫는 뚜껑인 캡, 그리고 용기가 담기는 상자 등 부재료가 원재료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일 메트로신문이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해 화장품의 원재료 가격 비중을 조사한결과에 따르면 화장품 원재료 가운데 부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50% 내외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스킨이나 로션 등 내용물의 원재료 가격 비중이 가장 낮았다.

조사 대상 기업 2개사 모두 내용물의 가격 비중은 20%를 넘지 못했다. 원가에 대한 부분은 한 반기당 모든 재료를 소진해 제품을 제조한다는 가정 하에 분석한 수치여서 각 재료별 재고 비중 등을 감안할 때는 실제 제조 원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OEM(주문자 부착표시제도) 제품인 상품의 경우 원재료와 부재료에 제조사 인건비와 마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때문에 상품 매출을 제외할 경우 원·부재료의 원가 비중도 다소 차이가 있다.

상품 원가를 포함할 경우 A사는 포장과 용기의 원재료 가격 비중이 56.86%로 제품 전체 원재료 비용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B사는 46.8%로 A사보다는 포장·용기 가격 비중이 낮은 편이었다.

상품 원가를 포함할 경우 A사가 B사에 비해 원재료 가격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품매출을 제외하고 비교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상품 원가를 제외하고 원재료와 부재료 비용만으로 수치를 분석할 경우 A사의 원재료 비중은 25.7%, B사는 29.59%로 높아진다. 원재료의 비중은 높아지지만 제조 시 소요되는 비용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용기와 내용물이 7대 3 수준이다. 쉽게 말해 공장 출고가 10만원 짜리 화장품에서 내용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3만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유현희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엔제리너스 커피 2016 다이어리 나왔다 음료교환권 등 포함



엔제리너스커피가 2일부터 '2016년다이어리 2종'(사진)을 선보인다.

2016년 엔제리너스커피 다이어리는 세련된 디자인과 작은 가방에도 들어갈 수 있게 컴팩트한 사이즈로 제작했다. 컬러는 1년 내내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산뜻하고 화사한 라일락과 오렌지 2가지 컬러로 제작됐다.

또한 다이어리 속에는 아메리카노 1잔 무료, MD용품 할인 등 3만원 상당의 엔제리너스커피 '스페셜 쿠폰'과 국내 일러스트 작가 조니리빗의 '컬러링북 세트', '나만의 원두' 가이드북 등이 포함됐다. 가격은 단품 구입시 9000원이며, 엔젤 앱카드로 5일 출시 예정인 겨울 신제품 음료 3잔을 포함 음료 10잔 구매 시 무료로 증정받을 수 있다. /유현희 기자

식품 광고 '마블리'에 빠지다

<마초+러블리>

마동석·박성웅 등 중년모델 코믹한 마초 이미지로 활약

식품업계 TV CF에 때아닌 마초바람이 불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남성미를 자랑한 중년 모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 이들은 광고 속에서 영화와 드라마 속 이미지를 살린 거친 대사로 제품의 특징을 알리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마동석, 박성웅, 김보성 등 마초남을 주인공으로 한 광고가 늘고 있다. 마초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으로 시작한 광고는 반전매력, 이른바 마블리(마초+러블리)적인 코믹요소를 곁들이면서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

마동석은 최근 사조해표의 '생생참치' 광고 영상에서 본인의 반전 매력을 유감없이 뽐냈다. '요리사 편', '선장 편', '수산시장 편' 등 총 3편으로 구성된 광고에서다. 각각 요리사, 선장, 상인으로 출연해 "얼리면 '생생'이 아니니깐!", "맛이 없으면 '생생'이 아니니깐!", "또 사조!" 등의 카리스마 넘치고 재치 있는 대사로 '상남자'와 '마블리'를 오가는 반전 매력을 선사했다.

악역과 카리스마 넘치는 형사 캐릭터를 넘나들며 스크린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우 박성웅은 최근 치킨 브랜드인 bhc 광고를 통해 특유의 '보스' 아우라를 드러냈다.



사조해표 생생참치 모델로 나선 마동석은 마초적인 매력과 반전이미지로 제품을 알리고 있다. /사조해표

박성웅은 영화 '신세계'를 연상시키는 광고 영상에서 남자의 치킨 '맛초킹'을 후계자로 세우려는 보스 역으로 등장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자연스럽고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선보였다. 특히 '들어와', '딱 좋은 날씨네' 등의 대사를 치킨과 연관시켜 재해석하면서 코믹적 요소를 부각시키기도 했다.

'터프 의리남'으로 통하는 김보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팔도 '비락식혜' 광고 모델로 기용돼 '의리'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에 새로 선보인 광고는 취조실을 배경으로 김보성과 명품 조연배우 조희봉이 용의자와 형사 역할로 분해 찰떡 코믹 연기를 선보였다. 공개된 광고에서 김보성은 "몇 살이야? – 멥살(멥쌀)", "옷이 그게 뭐야? – 바바리(밥알이)", "머리는 그게 또 뭔 기름이? – 엿기름, 국산 신토불이 엿기름" 등 과장되고 코믹한 액션과 톡톡 튀는 언어유희로 뜨거운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유현희 기자

네이처리퍼블릭 쉐어버터 크림 사면 저금통 '덤'

네이처리퍼블릭은 겨울철 최강 보습크림인 '쉐어버터 스팀크림'의 인기에 힘입어 3종 중 하나를 구입하면 동일한 용기 디자인의 저금통을 증정하는 고객 감사 이벤트를 벌인다고 2일 밝혔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전국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www.naturerepublic.com)에서 '쉐어버터 스팀크림' 저금통 증정 이벤트를 동시에 연다. 증정용 저금통은 '쉐어버터 스팀크림'을 그대로 형상화한 용기 디자인으로 친근감과 소장가치를 높였으며 제품과 동일하게 3종으로 구성됐다. /유현희 기자

쿠쿠전자, 김수현 TV광고 온에어

쿠쿠 인앤아웃 공기청정기

쿠쿠전자는 전속모델 김수현의 상쾌한 아침 일상을 표현한 신제품 '쿠쿠 인앤아웃(IN&OUT)' 공기청정기의 '공기 좋은 집 만들기' 편 TV 광고 방영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이번 광고는 쿠쿠전자의 '공기 좋은 집 만들기' CF캠페인의 첫 시작으로, 편안한 공기를 덮고 숙면을 취한 김수현이 쾌적한 공기에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는 모습을 담았다. 이번 신제품은 쿠쿠 플라즈마 이오나이저(CPI제균) 기능이 있어 공기 중 오염균을 제거해 깨끗한 공기로 바꿔주는 것은 물론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으로 스마트 예약기능(ON&OFF 예약/반복예약모드) 사용을 통해 불필요한 전기 낭비를 방지한 것이 특징이다. /유현희 기자



쿠쿠전자의 공기청정기 쿠쿠 인앤아웃의 새 광고. /쿠쿠전자

세계도로대회 '백세주'로 건배

공식 만찬주 선정

국순당의 '백세주'가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서울세계도로대회에 공식 건배, 만찬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50여개국 장·차관을 포함한 120여개국 정부대표단 1200여 명 등 전세계에서 3만5000여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길과 소통·도로교통 분야의 신가치 창출'을 주제로 열린다.

세계도로대회는 매 4년마다 개최되며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등 도로분야 선진국 위주로 개최되는 대회로 우리나라는 2번의 도전 끝에 지난 2010년 이번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행사에 건배주와 만찬주로 선정된 국순당 '백세주'(사진)는 출시 한지 23년이 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통주이다. 우리나라 전통주의 특징인 중후화면서도 신맛 단맛 등의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국순당 '백세주'는 이번 대회 일정 중 11월 2일 개최되는 환영 리셉션에서 공식 건배주로, 11월 5일 진행되는 환송만찬의 공식 만찬주로 사용된다. /유현희 기자

새로 나왔어요

나뚜루팝 크리스마스 케이크 4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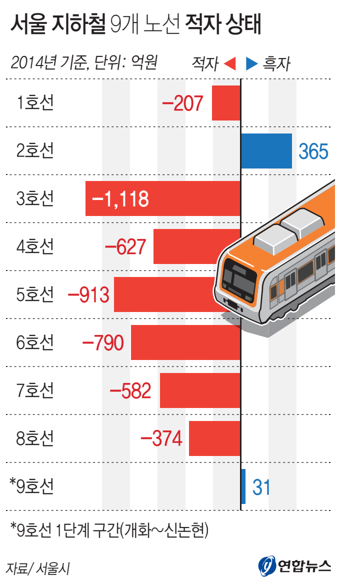
롯데리아의 아이스크림 전문점 나뚜루팝이 미리 만나는 크리스마스 시즌 맞이 신제품 '아이스크림 케익 4종'을 출시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아이스크림 케익은 '하트하트팝팝', '마법의성', '큐브빌리지', '스타썸' 총 4종으로 구성됐다. 특히 나뚜루팝에서 가장 인기있는 녹차, 초코, 요거트 등 2가지 맛이 마블된 아이스크림 6~7개를 한번에 맛볼 수 있다. 가격은 '하트하트팝팝', '마법의성', '큐브빌리지' 각 3만원, '스타썸'은 3만 8000원이다. /유현희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만 돈 번다

8개 노선서 연간 4000억 적자
3호선 작년 손실 1118억 '최악'
9호선은 매년 흑자-적자 시소

서울시 '경로 무임' 원인 꼽아



서울 지하철 9개 노선 중 8개가 매년 최대 수천억원대 적자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적자의 원인이 경로 무임승차 정책 때문이라며 손실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2일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9호선의 당기순손실은 4245억원에 달했다. 2012년(4183억원)과 2013년(4172억원)에도 4000억원대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어 손실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손실이 가장 큰 노선은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3호선. 3호선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11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에는 1154억원, 2013년에는 913억원의 손해를 봤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5호선(913억원), 6호선(790억원)과 서울메트로의 4호선(627억원)도 적자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흑자를 낸 노선은 2호선과 9호선뿐이었다. 서울메트로가 관리하는 2호선은 지난해 365억원, 주식회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관리하는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은 31억원의 이윤을 냈다.

그러나 9호선은 매년 흑자와 적자를 오가 온전하게 매년 이윤을 확보하는 곳은 9개 노선 중 2호선뿐이다.

2호선은 강남역, 삼성역 등을 지나 하루 이용객이 155만명(작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많은 덕분에 흑자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65세 이상 등의 무임수송을 꼽는다. 서울 지하철 당기순손실의 68%는 무임수송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 1~7월에도 벌써 총 1602억원의 적자가 났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지하철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노령층 무임수송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이며, 국가가 직접 지원금을 주는 코레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시에도 손실액의 절반 정도는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metroseoul.co.kr

이대여성암병원 '좋은 기업 대상'

여성소비자 선정 암센터 부문
부인암질환 연구 경쟁력 탁월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가 여성 소비자가 뽑은 좋은기업 대상 암센터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주웅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장(가운데)이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대여성암병원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된 '제18회 여성소비자가 뽑은 좋은 기업 대상' 암센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여성 소비자가 뽑은 좋은 기업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함께 선정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수상 기업을 선정한다.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는 자궁경부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등 부인암 전반을 담당하는 부인암클리닉과 여성의 방광, 요도, 질, 항문과 직장의 질환까지 담당하는 비뇨부인과클리닉,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의 양성종양을 주로 진료하는 자궁근종클리닉 등 특수 클리닉을 중심으로 국내 여성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있다.

또한 1887년 국내 최초 여성병원인 보구여관(保救女館) 설립 이후 임상 현장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부인암 질환 연구에 탁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웅 센터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표준화된 암치료 이외에도 젊은 여성, 고령 환자, 재발암 환자, 말기암 환자 등 부인암 환자 개개인의 특수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지하철 역, 청년·중기 '무료 홍보장' 열린다

서울메트로 경복궁·교대역
'스마트워크스테이션' 조성


경복궁역 스마트워크스테이션(왼쪽)과 교대역 스마트워크스테이션(오른쪽)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 지하철역에 청년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홍보 공간이 생긴다.

2일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가 3호선 경복궁역과 교대역에 '스마트워크스테이션'을 조성하고, 운영을 맡을 사업자를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워크스테이션은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홍보할 여력이 없는 개인이나 기업을 위해 마련된 홍보 공간이다. 경복궁역에 72.42㎡, 교대역에 63.63㎡의 면적을 확보하고 12월부터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는 공사에 제출한 제안서에 따라 본인들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이용객에게 홍보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기본 3개월이며 지역사회 기여도와 이용률 등 운영성과를 반영해 최장 3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공모에 제안 가능한 서비스는 ▲U-Biz 산업(정보통신·환경·바이오·헬스케어 등) ▲창업과 취업 지원(창업컨설팅·1인 창업·청년 일자리 창출 등)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여행·레저·게임·스포츠 등) 분야다.

서울메트로는 오는 5일 오후 3시 서울메트로 본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말 사업자 선정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메트로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스마트워크스테이션은 IT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쉼터와 접목해 개발됐다"며 "관심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미네랄 절임배추'로 김장하세요

해남농부

농약 대신 이온미네랄로 재배
택배비 포함 20kg 3만3000원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김치를 직접 담그겠다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 먹거리로 알려진 해남농부가 이같은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해 미네랄과 퇴비를 섞어 친환경으로 재배한 기능성 '미네랄 명품 절임배추' 판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배추는 농약 대신 이온미네랄을 투여해서 배추 자체 면역력을 증가시킨 것이 특징이다. 맛이나 식감도 뛰어나다. 전라남도 해남의 해풍을 맞고 자라 아삭아삭 씹히는 시원한 단맛이 일품이며, 배추 고유의 향미와 당도가 살아있다. 해남농부는 3년 이상 간수를 뺀 신안군 천일염과 체계적인 정수시스템, 150m 해수암반수를 통해 100% 믿고 먹을 수 있는 절임 배추를 생산하고 있다.

해남농부 오정근 대표는 "올해 김장 시즌을 맞이해 가족의 건강과 맛을 동시에 고려하여 식품을 구매하는 요즘 소비자의 추세에 맞춰 명품 해수절임 미네랄 배추를 자신있게 선보인다"며 "해남의 해풍을 맞고 자라 조직이 단단하며 이온미네랄이 투여돼 마치 우리 몸에 보약과도 같은 배추"라고 말했다.

해남농부의 절임배추는 20kg 기준 택배비를 포함해 3만3000원이다. 문의 : 061-533-1438

/유현희 기자

전동휠체어 충전기 '스마트 서울앱'서 찾는다

배터리 기능 저하·방전 걱정 끝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어르신의 활동 반경이 넓어진다.

2일 서울시는 '스마트 서울맵' 애플리케이션에 전동휠체어와 스쿠터의 급속충전기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 따라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는 약 4649대가 보급됐지만, 급속충전기의 위치 정보가 없어 활동에 제약이 따랐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사전 조사한 급속충전기 위치를 '스마트 서울맵'에 고지했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배터리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기능 저하와 방전 등의 걱정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충전기 위치가 확인된 장소는 23개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등 187개소다.

향후 지하철역, 복지관 등에 대한 충전기 위치도 확인되는 즉시 업데이트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스토어에 접속해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종만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전동휠체어 충전기 위치 확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더욱 편하게 외출할 수 있게 됐다" 며 "장애를 가진 시민의 이동 편의를 위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삼양바이오팜, 글로벌 지혈제 시장 진출

산화재생 셀룰로오스 상품화
국소출혈방지 '써지가드' 개발



삼양그룹이 글로벌지혈제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삼양그룹의 의약바이오 계열사 삼양바이오팜이 산화재생셀룰로오스가 주성분인 흡수성 지혈제 '써지가드 '(사진)를 세계 두 번째로 상품화에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산화재생셀룰로오스 지혈제는 외과수술 시 많이 사용되는 국소출혈방지용 흡수성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 규모가 3000억원에 달하며 그 동안 100% 수입에 의존해왔다.

삼양바이오팜에서 출시한 써지가드 는 4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대동물 실험 결과 외국산 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지혈 효과를 입증했다. 또한 세계적인 시험검사기관(NAMSA)의 생체 적합성 시험과 항균력 테스트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유현희 기자

"상대와 교감하니 연기가 더 재밌어요"



영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성 유 리

처음 성유리(34)를 만났을 때 조금 차갑다는 느낌을 받았다. 3년 전 '차형사'가 개봉했을 때였다. 물론 처음 만난 사람에게 진심을 털어놓기는 쉽지 않을 터다. 그럼에도 성유리는 인터뷰를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다만 한 가지 기억에 남았던 말이 있었다. "실제 성격은 털털해요. 친한 사람들은 잘 알죠." 3년이 지나서야 그때 말한 성유리의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를 통해서였다.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는 가까이 있기에 소중함을 잊고 지내온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옴니버스 영화다. 성유리는 까칠한 여배우 서정 역을 맡았다. 그런 서정을 짝사랑하는 매니저 태영 역의 김성균과 호흡을 맞췄다.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좋았어요. 서정에도 공감이 많이 갔고요."

물론 성유리가 공감한 것은 서정의 까다로운 성격이 아니었다. 그녀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공감했다. "처음에는 서정이 전형적인 여배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니 서정은 욕구불만 때문에 화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더 좋은 작품을 하고 싶지만 여러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공감을 했어요." 성유리와 다른 부분도 많았다. 답답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서정의 모습이 그랬다. "서정은 속마음을 막 터트리잖아요. 그래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대리만족도 했고요(웃음)."

성유리는 이번 영화에서 "상대방과 교감하는 연기의 재미"를 느꼈다. 상대 배우인 김성균과의 탄탄한 연기 호흡 덕분이었다. 영화 중반부 태영이 드라마 리허설을 통해 서정을 향한 감정을 에둘러 표현하는 신이 등장한다. 성유리가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은 장면이다.

"처음에는 서정이 태영에게 뽀뽀를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서정은 엄연히 남자친구가 있고 태영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도 이미 눈치채고 있잖아요. 그런데 뽀뽀를 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갖고 노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촬영에 들어갔는데 성균 오빠가 대본에 없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진심으로 느껴져서 뽀뽀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좋은 멜로 배우를 만난 덕분이었죠(웃음)."

성유리는 배우로 활동 영역을 옮긴 뒤에도 걸그룹 핑클 시절의 '요정' 수식어를 계속 달고 다녔다. 그 이미지를 깨고 싶었다. 드라마에서는 억척스러운 역할도 맡았고, 영화에서는 상업성과 거리가 먼 작품들도 과감히 선택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유리는 자신의 이미지가 자신만의 매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의 서정이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그런 성유리의 여유로움과 편안함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 까다로운 캐릭터에 공감 얻고 내면 연기에 대리만족 하기도
>
> 평소엔 털털하고 개그감 있지만 아름답게 나이드는 배우 되고파 "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성유리는 "평소에는 의외의 개그감이 있다"며 웃었다. 물론 "판을 깔아줘야 개그가 잘 나온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말이다. "이번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성대모사도 하려고 했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어요. 다음에는 꼭 성대모사를 보여드리고 싶어요(웃음)." 성유리의 꿈은 "아름답게 나이 먹는 배우"가 되는 것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조금씩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빅뱅, YG와 의리 지켰다… 멤버 전원 재계약

그룹 빅뱅(사진)이 현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체결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2일 "빅뱅의 다섯 멤버인 지드래곤·태양·탑·대성·승리와 전속 계약을 연장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빅뱅은 올 연말 계약 만료를 두 달 남짓 앞두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함께 성장해온 YG와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흔치 않은 신뢰와 의리를 지키게 됐다. 빅뱅의 재계약은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다.

빅뱅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매달 싱글을 발표해 큰 인기를 누렸다. 북미와 아시아 전역을 돌며 진행한 140만 관객 규모의 월드투어도 매진 행렬을 이어갔다.

한편 빅뱅은 오는 7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2015 멜론 뮤직 어워드'에 참석한다. 12일부터 15일까지 4일 동안 일본 도쿄돔 콘서트를 시작으로 일본 투어에도 돌입한다. /장병호 기자

걸스데이, 日 이어 대만서도 '인기몰이'

진출 후 첫 쇼케이스에 현지 팬 2000여명 운집 '한류 걸그룹' 인증

걸그룹 걸스데이가 대만 쇼케이스를 성황리에 마쳤다.

소속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걸스데이는 지난달 31일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의 TICC 공연장에서 쇼케이스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대만 팬 2000여명이 운집했다.

걸스데이는 100분 동안의 쇼케이스에서 '반짝반짝' '기대해' '여자 대통령' '썸씽' '달링' 등 12곡의 히트곡을 불렀다. 팬들도 걸스데이의 전곡을 따라 부르는 장관을 연출했다. 멤버 유라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됐다.

소속사 관계자는 "걸스데이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대만 진출을 알리는 행사를 가졌다. 많은 팬들이 와주시고 큰 호응을 해줘서 놀랐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며 "더욱이 유라의 생일을 축하해준 대만 팬들의 따뜻한 마음에 멤버들이 감격의 눈물을 쏟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걸스데이는 지난 9월 30일 일본에서 첫 앨범 '달링'을 발표하며 해외 공식 진출을 선언했다. 이어 대만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며 해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병호 기자




E channel
DRAMA cube
E채널 X 드라마큐브 동시방송
당신의 심장은 지금 우리들 만큼
뜨겁게 뛰어본 적이 있는가
로드트립 공감 드라마
라이더스
내일을 잡아라
11월 8일 일요일 밤 11시 첫방송
김동욱 | 이청아 | 최여진 | 윤종훈 | 최민 길해연 장호일 정이랑 이희진 미람 조병규 |특별출연| 권해효 홍석천 김강현 이동훈 |극본| 박상희 |연출| 최도훈
t.cast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동 레지던시展 열고 작가 작업실·창작물 선보여

국립현대미술관은 고양·창동 레지던시 전시를 시작한다.

고양레지던시는 11기 입주 작가의 오픈스튜디오 'De-Position'과 국제교환입주작가전 '경험의 공기'를 연다.

오는 13일~15일 열리는 오픈스튜디오에서는 11기 입주 작가 19명의 작업실을 공개하고 입주 기간 동안의 창작물을 선보인다. 관객들은 창작 현장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작가와 자유 대화 시간도 갖는다.

창동레지던시 국내입주작가 3인전 '창동레지던시 입주보고서 2015'는 서울관에서 4일~29일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는 2015년 국내 일반입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임흥순, 장윤성, 진달래 작가가 약 10개월의 입주기간 내에 진행한 작업의 결과물을 선보인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http://www.mmc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정동의 밤 후끈 달군 '프랑켄슈타인'

<뮤지컬>

박건형 등 출연진 총출동 '정동야행' 마지막날 빛내 4000여명 몰려 인기 입증



지난달 31일 덕수궁 중화전에서 '정동야행' 축제의 대미로 열린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콘서트'. /충무아트홀

2015년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인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이 개막에 앞서 '정동야행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콘서트'로 관객과 만났다.

'정동야행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콘서트'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덕수궁 중화전에서 열렸다. '프랑켄슈타인' 출연진이 관객들과 만나는 공식적인 첫 행사였다. 추워진 날씨에도 4000여명의 관객이 몰려 기대작임을 입증했다.

'정동야행'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 이번 콘서트는 '프랑켄슈타인'의 배우 박건형·전동석·박은태·한지상·최우혁·이혜경·이지수·홍경수를 비롯해 앙상블 배우들이 꾸몄다. 아울러 오케스트라, 바이올리니스트 콘(Kon), 피아니스트 윤한, 반도네오니스트 진선의 협연이 콘서트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초연을 빛낸 배우 박은태, 한지상의 폭발적인 무대 등 새로운 캐스트의 무대가 관객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이날 빅터 프랑켄슈타인 역의 박건형은 "2014년에 대성공을 거둔 '프랑켄슈타인'에 참여하게 돼 영광이다. 오는 26일 더욱 업그레이드돼 돌아 올 예정이니 여기 계신 관객 모두 극장을 찾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동석은 "부끄럽지 않은 배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공연장에서 확인해달라"며 본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고조시켰다.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초연 당시 흡인력 있는 스토리와 잘 짜인 전개, 웅장한 음악, 작품이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 등으로 언론과 관객들의 찬사를 받으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오는 26일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개막해 내년 2월 28일까지 공연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화려한 농구 실력 공개



◆ SBS '불타는 청춘'

오후 11시15분

배우 박선영이 수준급의 농구 실력을 선보인다. 개성 만점 교련복 패션으로 등장한 박선영은 박형준과의 즉석 자유투 대결로 보는 이들을 긴장케 한다. 두 사람은 함께 농구를 하는 과정에서 야릇한 포즈로 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정리=장병호 기자 solanin@

◆ KBS1 '시사기획 창'

오후 10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종자 확보전의 실상을 살펴본다. 종자 주권을 위협받고 있는 우리 현실을 집중 조명하고 정부의 대책을 점검한다.



◆ MBN '엄지의 제왕'

오후 11시

통증 해방의 숨겨진 비밀을 공개한다. 통증은 나이 때문이 아닌 몸의 각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단 4주 만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말끔하게 통증을 해결하는 비결을 소개한다.



◆ tvN '현장토크쇼 택시'

오후 8시40분

댄스 스포츠 선수 박지우, 디자이너 황재근이 게스트로 탑승한다. 박지우는 '금수저' 라는 논란에 대해 해명한다. 황재근은 유학 시절 100만원으로 생활한 비법을 공개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	JTBC	tvN	OCN	채널CGV
05:00 KBS 뉴스 05:10 내 고향 스페셜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40 중계방송 국회 인사청문회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1 대 100 (재)	05:00 MBC 뉴스 05:10 MBC네트워크특선 어부의 만찬 스페셜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내일도 승리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TV속의 TV	05:00 SBS 5 뉴스 05:10 굿모닝 510-충전 힐링 라이프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06:00 신인류 식품관 스페셜 07:00 이야기 보따리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00 김제동의 톡투유 (재) 10:15 마녀사냥 (재) 11:50 냉장고를 부탁해 (재)	06:00 삼시세끼 정선편 (재) 07:40 응답하라 1994 (재) 09:40 명단공개 (재) 10:40 문제적 남자 (재)	05:10 신들의 전쟁 07:10 주먹왕 랄프 09:00 본즈 시즌10	06:30 집으로 가는 길 09:00 나의 PS파트너 11:00 다시, 사랑을 꿈꾸다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2015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15:55 튼튼생활체조(재) 16:00 오늘의 경제 16:20 TV, 책을 보다 (재)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2:00 청춘 익스프레스 (재) 13:10 체인지업 도시탈출 (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6:40 동물의 세계 17:00 VJ 특공대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중계방송 국회인사청문회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13:2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14:05 내꺼야 폴록 (재) 14:30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15:10 꼬마돌 도도 15:40 통일전망대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불타는 청춘 (재) 14:00 중계방송 국회 인사청문회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15:00 SBS 뉴스 15:10 특집다큐 글로벌 청춘 보고서 결혼의 조건 16:00 꾸러기탐구생활 스페셜 16: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로봇 트레인	13:10 비정상회담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2:1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4:00 풍선껌 (재) 15:20 명단공개 (재) 16:2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3:00 인셉션 15:40 써니	13:00 창문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15: 00 콜롬비아나 17:00 사랑과 영혼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30 이웃집 찰스 20:25 우리 집 꿀단지 21:00 KBS 뉴스 9 22:00 시사기획 창 23:00 KBS 뉴스라인 23:40 창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24:35 독립영화관 <일로일로>	18:00 글로벌 24 18:30 2TV 저녁 생생정보 1 19: 50 다 잘될 거야 20:30 2TV 저녁 생생정보 2 20:55 1 대 100 22:00 발칙하게 고고 23:10 우리동네 예체능 24: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 30 리얼스토리 눈 22:00 화려한 유혹 23:10 PD수첩 24:05 MBC 뉴스 24 24:15 MBC 100분 토론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창사25주년 특별기획 미래 한국리포트 특집다큐 -정부, 전환기 함정을 넘어 22:00 육룡이 나르샤 23:15 불타는 청춘 24:35 나이트라인	18:3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9:55 JTBC 뉴스룸 21:3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22:50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24:25 송곳 (재)	18:10 문제적 남자 (재) 19:40 오마이갓 20:40 현장토크쇼 TAXI 21:40 집밥 백선생 23:00 풍선껌 24:20 현장토크쇼 TAXI (재)	18:00 제보자 20:20 트랜스포머 3 23:00 크리미널 마인드 시즌10	19:30 플라이트 22:00 인시디어스:두번째 집 24:00 백발마녀전:명월천국

박병호에 20개구단 관심

<메이저리그>

2년 100홈런에 "어서오라"
넥센, KBO에 포스팅 요청

한국프로야구 최고의 거포인 넥센 히어로즈의 박병호(29)가 마침내 메이저리그에 도전한다.

넥센은 2일 오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메이저리그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을 공식 요청했다. KBO로부터 박병호의 포스팅 신청을 전달받은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30개 구단에 이를 공시한다.

이후 4일 동안 박병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구단들이 입찰액을 적어내면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7일 새벽에 가장 높은 금액을 KBO에 통보한다. 넥센은 9일 포스팅 수용 여부를 논의한 뒤 최종 결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협상이 타결되면 박병호는 전 팀 동료인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에 이어 한국프로야구 야수로는 2번째로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게 된다.

박병호는 지난해 12월 15일에 포스팅을 신청한 강정호와 달리 시점을 한 달 이상 앞당겼다. 그만큼 박병호와 넥센, 에이전트의 자신감이 가득하다는 뜻이다.



넥센 히어로즈는 2일 한국야구위원회에 박병호(오른쪽)의 메이저리그 포스팅을 공식 요청했다. 사진은 2015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경기 출전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훈련 중인 박병호의 모습. /연합뉴스

실제로 박병호는 올 시즌 내내 스카우트들을 몰고 다니며 흥행을 예고했다. 박병호에게 관심을 보인 구단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보스턴 레드삭스·텍사스 레인저스·피츠버그 파이리츠·클리블랜드 인디언스·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등 2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호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강정호가 메이저리그 데뷔 첫해에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뒀기 때문이다. KBO리그의 수준을 어느 정도 증명했기에 박병호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는 분석이다.

뉴욕 메츠 단장 출신인 짐 두켓은 박병호의 포스팅 금액을 2000만 달러(약 226억원)까지 예상했다.

박병호는 KBO리그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50홈런을 쏘아 올린 선수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홈런·타점왕을 차지했다. 올해는 정확성까지 가미해 타율을 0.343를 끌어올리며 약점 없는 타자로 진화했다.

박병호의 메이저리그 진출이 현실이 된다면 그가 미국에서 몇 개의 홈런을 때릴지가 관심이다. 장밋빛 전망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박병호는 야구 국가대항전 프리미어 12를 준비하고 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캔자스시티 '30년의 한' 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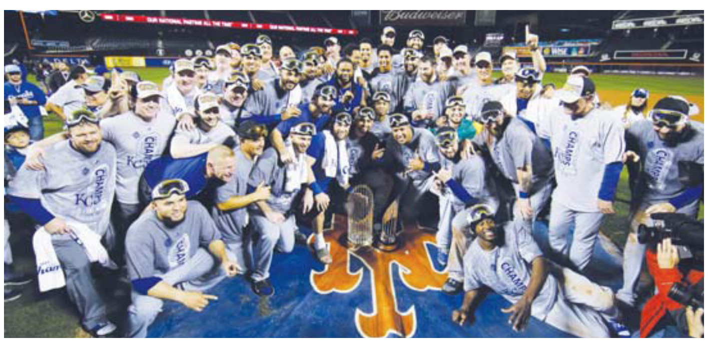
뉴욕메츠에 역전 승 거두며
시리즈 4승 1패로 WS 우승

캔자스시티 로열스가 뉴욕 메츠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30년 만에 월드시리즈(WS·7전4승제)에서 우승했다. 팀 창단 후 두 번째 우승이다.

캔자스시티는 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뉴욕 시티 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 5차전 원정경기에서 뉴욕 메츠와 연장 12회 접전 끝에 7-2로 승리했다.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확정했다.

캔자스시티는 0-2로 뒤지던 9회초 동점을 만들었다. 균형을 이어가던 12회초 5점을 쓸어 담아 극적인 승리를 연출했다.

월드시리즈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는 포수 살바도르 페레스에게 돌아갔다. 페레스는 5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한 이날 5차전을 포함, 이번 월드시리즈에서 22타수 8안타(2루타 2개)로 타율 0.364를 기록하고 1볼넷 2타점 3득점으로 활약했다.



캔자스시티 로열스 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시티 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뉴욕 메츠에 7-2로 승리해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확정했다. 캔자스시티 선수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다. /AP 연합뉴스

그는 이번 포스트시즌 16경기 전 경기에 포수로 선발 출전해 캔자스시티의 안방을 지켰고 타율 0.259, 4홈런을 기록했다. /장병호 기자

나이지리아·말리, 4강 진출

U-17 월드컵

나이지리아, 5분 만에 3골
말리, 전반 20분에 결승골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열린 호주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기뻐하는 나이지리아 선수들. /AFP 연합뉴스

아프리카의 축구 강호 나이지리아와 말리가 2015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에서 브라질과 크로아티아를 꺾고 4강에 진출했다.

나이지리아는 2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칠레 비냐 델마르의 소살리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8강전에서 브라질에 3-0으로 승리했다.

앞서 열린 16강전에서 나이지리아는 호주를 6-0으로 꺾고 가뿐하게 8강에 올랐다. 브라질과의 경기에서는 5분 만에 3골을 넣으며 손쉽게 이겼다. 나이지리아는 U-17 월드컵 최다 우승팀(4회)이다. 경기 초반 브라질과 접전을 벌였으나 전반 중반 이후부터 소나기 골을 퍼부으며 4강행을 확정했다.

말리는 칠레 치얀 넬손 오야르순 아레나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로아티아와의 8강전에서 1-0으로 승리했다. 말리는 전반 20분 세쿠 코이타가 회심의 결승골을 넣으며 4강 티켓을 획득했다.

나이지리아는 6일 멕시코-에콰도르 승자와, 말리는 벨기에-크로아티아 승자와 4강전을 치른다. /장병호 기자

손흥민·이청용, 슈틸리케호 합류

월드컵 아시아 예선 명단 발표
9일 수원서 소집 후 훈련 돌입

부상에서 회복한 손흥민(토트넘)과 이청용(크리스털 팰리스)이 슈틸리케호에 합류한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사진)은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5, 6차전에 나설 23명의 태극전사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는 12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미얀마와의 경기, 이어 17일 오후 9시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리는 라오스와의 경기에 나선다.

이번에 발탁된 선수들은 지난달 치러진 쿠웨이트와의 2차 예선 4차전에 나섰던 선수들과 큰 변화는 없다. 다만 부상으로 빠졌던 손흥민과 이청용이 복귀했다. 권창훈(수원)은 올림픽 대표팀으로 이동하면서 슈틸리케호에서 잠시 빠졌다. 안면 복합골절로 재활하고 있는 이정협(부산)도 명단에서 제외됐다.

수비라인에서는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성남FC의 수비수 윤영선이 생애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권창훈만 빠졌다. 원톱 스트라이커 요원으로 발탁됐던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은 미드필더 요원으로 자리를 바꿨다.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기성용(스완지시티)·정우영(빗셀 고베)·한국영(카타르SC) 등 핵심 자원이 모두 포함됐다. 남태희(레퀴야)와 이재성(전북)도 슈틸리케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최전방 공격진에서는 포르투갈 프로리그에서 활약 중인 석현준(비토리아FC)과 '토종 골잡이' 황의조(성남)가 경쟁을 펼친다.

골키퍼에는 기존 멤버 김승규(울산)·권순태(전북)·정성룡(수원) 외에 조현우(대구)가 추가로 발탁했다. 예비명단에는 오재석(감바 오사카)·홍철(수원·이상 DF)·김승대(포항)·김민우(사간 도스·이상 MF)·김신욱(FW·울산) 등이 이름을 올렸다.

태극전사는 9일 수원에 소집돼 훈련에 나선다. 미얀마전을 치른 뒤 15일 출국해 라오스 원정에 대비한다. /장병호 기자



北 리세광, 세계체조선수권 도마 2연패

양학선은 부상으로 결장

북한의 리세광(30)이 세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도마 2연패를 달성했다.

리세광은 1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SSE 하이드로 아레나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FIG) 제46회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 남자 도마 결선에서 1, 2차 시기 평균 15.450점을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루마니아의 마리안 드라굴레스쿠(15.400점)가, 3위는 미국의 도넬 휘튼버그(15.350점)가 차지했다. 한국의 김한솔(한국체대)은 14.500점을 얻어 참가 선수 8명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도마의 신' 양학선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번 대회에 결장했다.

리세광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2007년 슈투트가르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지난해 난닝 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올해 대회까지 2연패에 성공했다. /장병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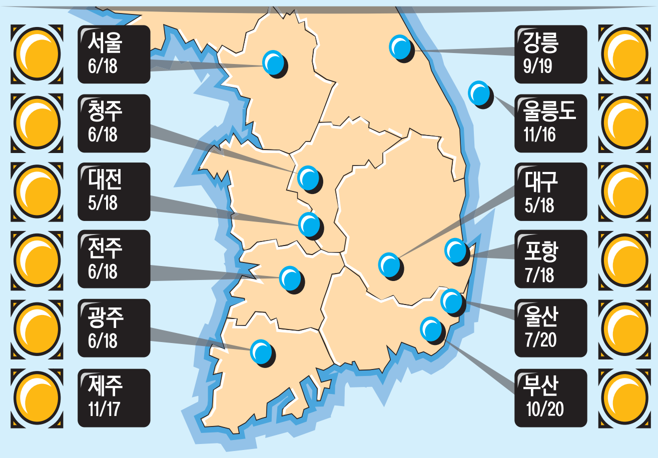


북한의 리세광(가운데)이 1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세계체조선수권대회 남자 도마 결선에서 1위를 차지해 지난해에 이어 2연패에 성공했다. /AP 뉴시스

날씨

11/3 화 일출시각 06:58 일몰시각 17:32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 감기가능지수 / 천식-폐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8	3			6	
	9	8			6	3		
			6		8	4		3
	6	3		2		7	1	
7		2	4		3			
		7	1			5	3	
	5			4	2		7	

8				6				
	7			9		2		1
3			5			9	4	
	6						8	2
		5				4		
2	3						9	
	5	7			8			9
9		8		3			7	
				1				4

스도쿠 정답

5	2	4	8	3	1	9	6	7
3	7	6	2	9	4	1	8	5
1	9	8	7	5	6	3	4	2
9	1	5	6	7	8	4	2	3
4	6	3	9	2	5	7	1	8
7	8	2	4	1	3	6	5	9
2	4	7	1	8	9	5	3	6
8	3	1	5	6	7	2	9	4
6	5	9	3	4	2	8	7	1

8	9	2	1	6	4	5	3	7
5	7	4	8	9	3	2	6	1
3	1	6	5	7	2	9	4	8
4	6	9	3	5	1	7	8	2
7	8	5	9	2	6	4	1	3
2	3	1	4	8	7	6	9	5
1	5	7	6	4	8	3	2	9
9	4	8	2	3	5	1	7	6
6	2	3	7	1	9	8	5	4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Here is a fifty

Clerk : Will that be all? Your total comes to $29.95. Cash or credit?

Young : Credit. Do you accept Visa?

Clerk : Sorry sir, we only honor Amex and Mastercard.

Young : In that case, I'll pay by cash. **Here's a fifty.**

여기 50 달러 입니다

직원 : 전부요? 29달러 95센트입니다. 현금이나 카드요?

영 : 카드요. 비자카드를 받나요?

직원 :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는 아맥스와 마스터카드만 취급합니다.

영 : 그럼. 저는 현금으로 지불하겠습니다. **여기 50 달러입니다.**

Quiz

Q.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dialogue?
(A) The man has no money.
(B) The man has many credit cards.
(C) The man wants to save money.
(D) The man will not use his credit card.

문법Point

Here is + 명사구(형용사)
여기는 ~입니다(합니다).

Here is~ 라는 이번 패턴은 단순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무엇인가가 있다', 혹은 '여기 상태가 현재 ~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명사나 형용사와 함께 쓰시면 됩니다.

퀴즈해설

Q. 들려준 내용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A) 남자는 돈이 없다.
(B) 남자는 신용카드가 많다
(C) 남자는 돈을 아끼고 싶어한다.
(D) 남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어학원 Global Language Institute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궁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자분의 조력이 매우 좋습니다

기쁘미 남자 81년 4월 19일 음력 6시 40분
여자 81년 11월 16일 음력 19시 30분

Q 안녕하세요? 궁합이라는 게 좋으면 더 좋게, 안 좋으면 안 좋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조심스러운 이야기 들으면서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남자 81년 양력 4월 19일 06시 40분이며 여자 81년 음력 11월 16일 19시 30분입니다. 궁합은 어떤가요. 또 좋은 인연은 무엇인지요. 어떤 인연인지 잘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인연에 대한 생각도 궁합 이야기 해주시면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A 옷깃이라도 스치고 지나가는 것도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유독 그 사람과 스치게 된단 말입니까. 그 숱한 사람들과 그 숱한 세월 속에서 나와 만났다는 것은 설사 그것이 아무리 짧은 만남이었다 치더라도 참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교용어에도 있지만 인연(因緣)은 원인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인(因)은 결과를 낳기 위한 내적인 직접적 원인을 의미하고 연(緣)은 이를 돕는 외적인 간접적 원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양자를 합쳐 원인의 뜻으로 사용합니다. 직접적인 원인으로서의 인(因)과 간접적인 원인으로서의 연(緣)을 구별할 경우 예를 들어 씨앗은 나무의 직접적 원인인 인(因)이고 햇빛·공기·수분·온도 등은 간접적 원인인 연(緣)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씨앗에서 나무가 나타나게 하는 원인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귀하가 상대 남자를 만나는 것도 전생의 인연에 의하여 만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삼생(三生:전생, 현생, 래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생에 선연(善緣)이었다면 현세에서 선한 관계로 만나 즐거운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분의 궁합은 천간지지(天干地支)에서 합생(合生)을 이루고 있으며 여자분의 내조로 힘을 받게 되면서 천을귀인(天乙貴人)을 갖고 있어서 귀인의 도움을 받듯이 여자 분의 조력이 매우 좋습니다. 남자는 시비를 가리는 비판력을 지녔으며 의리와 청백한 면에 있어서는 높이 살만 하지만 사회성을 중요시하다 보니 여자 분이 결혼을 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고 건강상으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의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1월 3일 (음 9월 22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 **48년생** 마음에 중심이 없고 흔들림이 많은 날입니다. **60년생** 안정을 취하세요. **72년생** 심장과 소화기에 병이 들 수 있습니다. **84년생** 일을 추진하기 앞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소 — **49년생** 매매는 이루어지나 큰 이익은 없겠습니다. **61년생** 타인의 재물에 욕심부리지 마세요. **73년생** 지나친 신경은 건강을 해칩니다. **85년생** 순리대로 진행하세요.

호랑이 — **50년생** 심기가 편치 못합니다. **62년생** 내일을 기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74년생** 일찍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보내세요. **86년생** 미래를 미리 대비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토끼 — **51년생** 서쪽이 길한 방향입니다. **63년생** 냉철한 이성으로 오늘을 이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75년생** 사업의 확장이나 투자는 금물입니다. **87년생** 상대가 양보하지 않습니다.

용 — **52년생** 중요한 협상은 내일로 미루세요. **64년생** 자녀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76년생** 자기 발전을 위해 매진하세요. **88년생** 보기 좋은 감이 맛도 좋다고 했습니다.

뱀 — **53년생**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부딪혀 보세요. **65년생** 강직하게 밀고 나가세요. **77년생** 주머니가 배로 늘어납니다. **89년생** 소속된 집단에서 큰공을 세우게 됩니다.

말 — **54년생** 만족할만한 결과로 일이 마무리됩니다. **66년생** 노력을 닦은 결실이 맺어집니다. **78년생** 자신 있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90년생** 고난은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으니 인내하세요.

양 — **55년생**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67년생** 육신이 고달프니 이내 몸이 외롭습니다. **79년생** 매매는 미루고 소송은 당기세요. **91년생** 이성을 잃지 마세요.

원숭이 — **56년생** 노력하지 않으면 하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68년생** 인간사 매사 튼튼히 노력하며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80년생** 분주하고 소득이 없습니다. **92년생** 금전운이 열립니다.

닭 — **57년생** 결과에 연연하니 실력 발휘가 안 됩니다. **69년생** 과감한 변신이 필요한 때 입니다. 81년생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93년생** 스스로를 혁신하세요.

개 — **58년생** 귀인이 도와 해결됩니다. **70년생**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마세요. **82년생** 가족과 우정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94년생** 재능이 있으니 늦게라도 원하는 바는 이루어집니다.

돼지 — **59년생** 귀하를 돕는 큰 업체와의 계약이 성사됩니다. **71년생** 지금 하는 일을 유지해야 합니다. **83년생** 원하는 것 중 작은 것은 이루어집니다. **95년생** 지금은 조금 이른 시기입니다.

독립 매장이냐 프랜차이즈 매장이냐



이상현의 창업돋보기

2015년을 어느덧 두 달만을 남기고 있다. 창업시장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하나같이 올해를 어려운 시기였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는 메르스 영향으로 창업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물론 그럼에도 내실을 다진 업종은 있었다.

2016년을 두 달 남기고 있는 시점 지금 이순간도 창업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예비 창업자들 존재할 것이다.

특히 경험이 없는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겪는 선택의 갈림길이 있다. 바로 아이템 선정시 독립 매장으로 창업할 것인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창업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창업 시장이 그런 것처럼 확실한 정답은 없다. 독립 매장과 프랜차이즈 창업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자신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패스트푸드 업종이나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한 업종, 또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업종(아이템)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이 유리하다. 반면 특별한 노하우가 없어도 상품 구매경로를 잘 알고 있고, 약간의 경험과 노력이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업종들은 독립 매장이 유리하다.

먼저 독립 매장의 경우에는 상품 구매를 비롯한 경영의 모든 일을 독자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익률에 대한 결정권을 자신이 가질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경영으로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영에 관한 모든 것을 사업자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야 함으로 경험이 없는 초보자의 경우에는 점포 운영이 매우 어려울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란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이 상호간에 가맹사업 계약을 맺는 것으로 가맹사업본부는 상품의 판매권, 경영기술의 제공, 상호 사용권, 각종 판매촉진 등의 영업 활동을 해 준다. 가맹점은 그 대가로 일정한 로열티를 가맹본부에 내고, 판매에만 전념할 수 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창업은 가맹본부가 상권분석, 인테리어, 상품공급, 영업기반, 광고 등의 모든 일을 처리해 줌으로 초보자도 쉽게 창업이 가능하다. 또 전국적으로 동일한 브랜드와 인테리어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신뢰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가맹본부에 일정률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익률이 독립점보다 떨어질 수 있다. 또 가맹본부의 영업지침을 준수해야 함으로 독자적인 영업 전략을 100%로 발휘할 수 없다는 것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단점 중 하나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업종 분야에서 프랜차이즈화가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점차 독립 매장의 고유영역이 줄어들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독립 매장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영업 형태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 무엇보다 예비창업자 자신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영업 형태를 선정하는 것이 성공 창업의 핵심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

'개미귀신'과 정부정책



기자 수첩

김 문 호 <파이낸스&마켓>

어린시절 외갓집 툇마루. 모래땅에 깔때기 모양의 조그만 구멍이 있었다. 명주잠자리의 유충인 '개미귀신'이 파놓은 '밥그릇(개미지옥)'이다. 개미가 이곳에 빠지면 살아 나오기 어렵다. 빠져나오려 발버둥치는 순간 흙이 무너져 내린다. 그 틈을 타 개미귀신은 배를 채운다.

특이한 점은 사냥법이다. 개미들이 지나갈 만한 적당한 길목에 자신의 몸집 보다 수십배 큰 구멍을 판다. 몇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이상 걸린다고 한다. 적잖은 고통과 인내가 필요한 일이다. 힘들다고 게을리 하지도 않는다.

정부가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데도 개미귀신이 구덩이를 파는 과정처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좀비기업' 퇴출에 나선 금융당국의 고심도 컷을 것이다. 회생 가능성이 큰 기업은 살리겠지만, 부실 기업은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 개미잡는 구덩이는 만들어진 셈이다.

지금부터 해야할 일은 모두가 힘을 모아 성과를 내기위한 노력과 시간의 싸움이다.

'개미귀신'은 언제 먹잇감이 지나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구덩이 가장 깊은 곳에 몸을 숨기고 빠져들기를 기다린다. 지루한 기다림과의 싸움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곧바로 성과를 낸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이런 경우는 불가능에 가깝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정책 흠짓내기에 바빠보이는 세력이 생기고 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했다. 꺼져가는 한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힘을 모으고,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하다. 기다림을 아는 '개미귀신'에게 배우는 두번째 교훈이 아닐까.

치타의 순간 시속은 112㎞. 지구상의 어느 야생동물보다 빠르다. 그렇게 빠른 치타의 사냥 성공률은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개미귀신은 오죽하겠는가. 구덩이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곳으로 개미들이 지나가야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을.

그들에게도 나름 기다림의 원칙이 있다고 한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도 개미들이 찾지 않을 땐 주저없이 구덩이를 버리고, 새로운 곳을 찾는다고 한다.

이때 판단해야 할 핵심은 처음 세웠던 정책선택의 동기라고 본다. 상황이 바뀌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가게된다면 과감하게 다른 대안을 찾아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을 정책 시험대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개미귀신에게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이 아닐까.

인 사

◇행정자치부 ▷국·과장급 전보 △정부청사관리소 청사시설기획관 임호철 △정부청사관리소 서울청사관리소장 조소연 △정부청사관리소 방호안전전과장 조성배 △정부청사관리소 청사수급기획과장 황승진 △정부청사관리소 시설총괄과장 정효직 △정부청사관리소 시설지원과장 황동훈 △정부청사관리소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장 이강옥 △정부청사관리소 서울청사관리소 시설과장 오정호

◇국민안전처 ▷과장급 전보 △재난관리실 복구총괄과장 최명규 △세월호배상및보상지원단 파견 우성현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전담직무대리 지만석

◇통계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임용 △경인지방통계청장(책임운영기관장) 김남훈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김현애 △경인청 조사지원과장 한희석

◇울산시 중구 ▷5급 전보 △기획예산실 김명섭

◇천안시 ▷5급 승진 △맑은물사업소 관리과장 홍성래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장 장호영 △동남구 신안동장 권오현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송 필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社 說

삼성 '발상의 전환'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연이어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다. 최근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계열사들이 차례로 자사주 매입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무려 11조3000억원을 자사주 매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상최대의 주주환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2일 증시에서도 삼성증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주가가 올랐다.

이들 계열사는 한결같이 자사주 매입에 대해 주가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금까지 설비투자나 연구개발 투자 등 회사 성장을 위한 투자만 해왔지만, 앞으로는 회사이익의 주주환원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사실 삼성 계열사의 주주들은 지금까지 냉대받아 왔다. 이를테면 삼성전자의 배당성향은 10%에 조금 넘는데 불과해 30~40%에 이르는 세계적 IT기업에 비해 크게 낮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이들 외국기업보다 현저하게 적은 데는 인색한 배당도 한몫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삼성 주요계열사의 자사주 매입은 큰 변화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일단 '발상의 전환'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렇지만 이번 자사주 매입으로 삼성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앞으로도 배당 확대를 비롯한 폭넓은 주주존중 정책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배당이 성장잠재력을 위협할 만큼 과도해서는 안 되고 적도를 지켜야 된다. 적정한 배당을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존중하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회복에도 유익하다. 이익을 회사 내부에 쌓아두기만 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으로는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내줄 줄도 알아야 한다.

한편으로는 삼성 계열사들이 보유하거나 앞으로 매입할 자사주가 향후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할 역할도 관심거리다. 자사주의 역할은 이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다. 앞으로 자사주가 주주존중의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돼야 할 것이다.

하차요구 무시한 운전자 '감금죄' 될까

생활 법률

A씨는 평소 상냥하게 자신을 대해준 B씨를 마음에 두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 관심이 없음을 수차례 표현한 B씨.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던 A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며 그녀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 당초 목적지라고 알려준 곳에 하차하지 않는 A씨의 행동에 위협을 느낀 B씨. 내려달라는 그녀의 요청에도 A씨는 운행 속도를 높이며 그녀의 하차를 방해했다. 결국 B씨는 차량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 나오려다가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 이 상황에서 B씨는 A씨에게 감금죄와 상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감금죄는 유·무형을 가리지 않고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 경우에 적용된다. 가령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곤란하게 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감금죄는 행동에 제약을 하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에도 해당되지만 심리적으로 행동에 제동을 거는 등 무형적 장해도 이를 포괄한다.

이에 따라 B씨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A씨가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해 속도를 높여 차량을 운행,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이 같은 감금 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감금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다.

형법 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동법 제281조 제1항에서도 이 같은 죄를 범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이 재판으로 넘겨진다면 A씨에게는 감금치상죄가 적용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연미란 기자 actor@



배곧신도시 최대상권의 중심에서 완벽한 성공을 잡으십시오!

신도시 중심상권인가?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재학생들이 주목하는 제2의 대학가 상권 인근 복합 쇼핑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마트 등 집중

배후수요가 풍부한가? 시화, 반월, 남동스마트허브 38만여 명 근로자가 주목하는 상권 로얄팰리스 720세대 독점, 배곧신도시 56,000명이 다니는 길목

트랜드를 앞서가는가? 최신 스트리트 몰, 단지 중앙의 대형 팰리스 가든을 통한 집객 층고 5.5M 이상의 복층상가로 1개 점포에서 2배의 수익 창출

요즘 뜨는 아파텔 분양중!

- 층간소음無, 화재걱정無, 관리비걱정無
- 수도권 신도시 최저 분양가 590만원대
- 전세대 2룸 or 3룸 + 1거실



문의전화

02)6334-9395

| 청약방법 |
■입금계좌 : 기업 021-644-6661 ■청약금 : 100만원
■예금주 : (주)로얄 ■미 계약시 청약금은 전액 환불됨.

시행사 (주)로얄 / 베스트홀딩스(주)
시공사 다인건설(주)
신탁사 KOREA trust 코리아신탁 / SAENGBO 생보부동산신탁